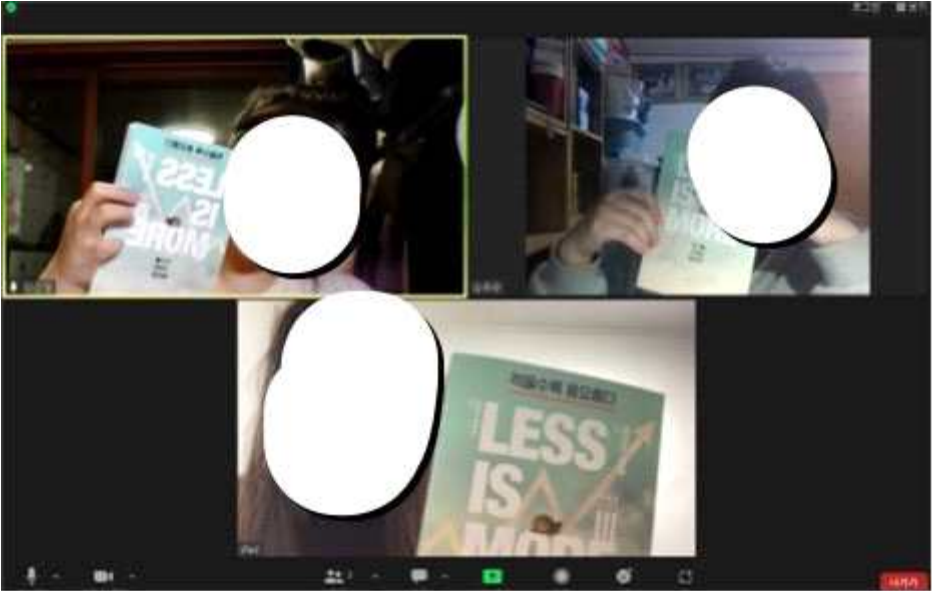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비즈니스 사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 장소 : zoom 회의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강*민	학번	2019****	이름	김*나
	학번	2019****	이름	강*란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1회기] 서기: 강*민 1장 자본주의 : 탄생 이야기</p> <p>* 북토크 사진</p>  <p>1) 책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은 문장</p> <p>[김*나] p91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엄청난 생산력의 발생이 인위적 희소성의 상태 만들어 내고 유지하는데 달려있다는 것이다. 희소성과 굶주림의 위협은 자본가의 성장 동력을 작용했다.”</p>							

-> 환경오염이 시작된 계기를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했다. 그전까지 환경오염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면서 환경오염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고 느꼈다.

p120

“세계란 실제로 살아 있지 않고, 확실히 우리의 친척도 아니며, 오히려 추출되고 버려지는 물건일 뿐이다.”

->우리가 환경에서 더 큰 세계로 바라봤을 때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안주하는 모습을 반성할 수 있었다.

[강*란]

P107

“동식물에는 영혼이나 섭리, 의도나 동기가 없다. 동식물은 자동화된 기계에 불과해 예측할 수 있는 역학 법칙에 따라 시계처럼 짜깁기처럼 흘러간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데카르트는 살아있는 동물을 해부하는 데 몰두했다.~데카르트가 아내의 개를 해부했던 것은 특히 기괴한 사건이었다.”

-> 동물을 수단으로만 생각한 데카르트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자기 가족 아내가 키우던 개임에도 자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명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그가 말하는 인간이라는 것이 대한 의문을 던졌다.

[강*민]

p115

“‘공짜’란 그들이 자원에 대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미 외에 되돌려 주지 않았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토지와 물자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결론적으로 피지배 나라에는 자신이 발전시켜 줬다고 주장하는 국가들에 왜곡된 언행을 꼬집는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세대가 나오기까지 공짜 노동력과 공짜 토지, 공짜 물자 등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인간, 환경이 파괴되고 훼손되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이었다.

p119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관심 영역 밖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다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유전자 깊은 곳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둘로 나누고 자연에 대해서 인간 우월적 사상이 박혀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문장이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자연이 파괴되더라도 실천하지 않은 이유를 찾은 문장이었다.

2) 토론 - 왜 사람들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일 밖이라고 생각하는가?

[김*나]

-> 이미 우리는 환경오염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 배달이 증가하면서 플라스틱이 방대해졌다. 우리는 이미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어서 환경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에도 자신 일 밖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강*란]

-> 아직 우리에게 큰 손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 안에서 환경오염과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환경오염이 되더라도 우리 이후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반성하지 않는다.

[강*민]

-> 인식에서 인간일 것 자체에 대한 우월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을 사용하고 더해서 훼손하지만, 인간이 성장하게 된다면 괜찮다는 그런 인식만이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과 동물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그것조차 우월주의이며, 더 자신의 목적대로 환경을 이용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3) 토론 -인클로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나]

-> 인클로저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인클로저가 발생하여 우리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다. 반면, 환경과 이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농민)은 손해를 입는 결과를 낳았다.

[강*란]

->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문장처럼 인클로저는 경제성장을 이루게 하는 발판이었지만 이를 위해 노동력 착취를 당한 농민들이나 파괴된 환경을 보게 되면 자본주의에 대한 모순을 찾을 수 있다.

[강*민]

->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인클로저는 약탈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경제는 성장하고 자본주의의 시대를 여건 맞을지 모르나, 농민의 토지 약탈, 내몰린 농민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공장에서 기계 부품처럼 취급되고, 토지를 빼앗기 위해 태워지고 훼손된 환경 등 과거보다 더 못한 인간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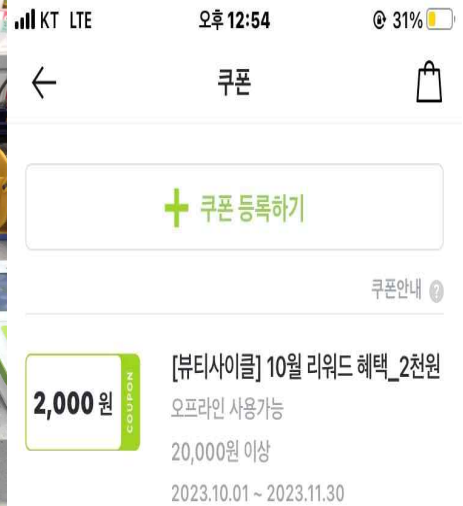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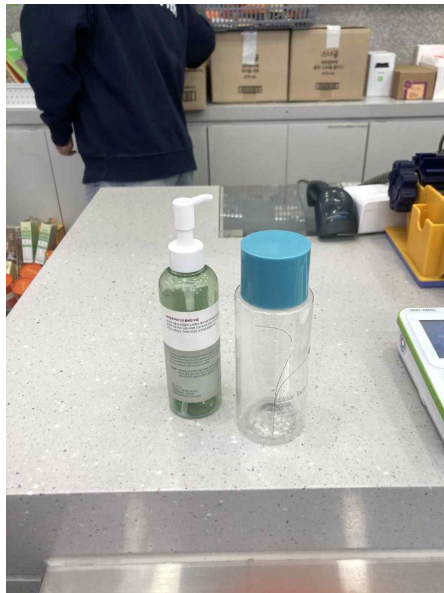
4) 이번 주 실천

[김*나]



-> 근무 때 텀블러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줄임.

[강*민]



-> 올리브영 제품들 다 사용 후 올리브영에 공병 제출 후 재활용 쿠폰 받기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강*란]



-> 용기 내 챌린지

: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 챌린지로 배달 음식 포장 때 집안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로 포장

5) 이번 회기 북토크 활동 후 소감

[김*나]

-> 1장 자본주의: 탄생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본주의가 탄생하면서 환경오염이 급격하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도 자연에서 자원을 무분별하게 추출하고 쓸모를 다하면 아무렇게 버려지는 물건 취급을 받고 있다. 우리는 정작 눈앞에 보이는 각자의 삶에만 관심이 있으며, 거시적으로 봤을 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제 일 밖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환경오염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당연하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나도 환경오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래서 실천으로 카페에서 근무할 때마다 음료를 플라스틱 컵이 아닌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가서 사용함으로써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였다.

책을 읽으면서 '인클로저'라는 용어를 처음 알게 되었고 나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인클로저로 인하여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였으나 환경오염과 계급사회가 시작했기 때문이다. 책을 읽기 전에는 지구를 구하는 것과 경제는 무슨 관련이 있는냐는 의문이 들었는데 1장을 읽으면서 환경과 경제가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란]

-> 1장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태어남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음에 놀랐으며, 발전을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환경을 파괴한 인간의 이기심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인클로저'는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책을 읽으면서 인클로저는 어떻게 보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어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환경을 파괴하고, 농민들의 노동력을 착취시키는 등 막대한 손해를 끼치기도 하였기 때문에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주에 한 번씩은 꼭 실천을 해보기로 하였다. 음식을 포장할 때 일회용 포장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사용하던 다회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포장해 왔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은 물론 포장 비닐 사용을 줄일 수 있었다.

[강*민]

-> 적을수록 풍요롭다 1장은 자본주의의 탄생에 관해 설명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는 희망적이고 인간을 풍요롭게 했다는 관점이 있었다.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왔다. 마치 아메리칸드림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 이면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자본주의에 탄생의 비하인드를 책을 읽으면서 알 수 있었다. 인클로저를 통한 자원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는 인위적 희소성이 자본주의의 시작이었다.

다양한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여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인위적 희소성을 만들었다. 이러한 인위적 희소성은 자원을 더욱 파괴하도록 인간을 더 혹독하게 다뤄지게 하였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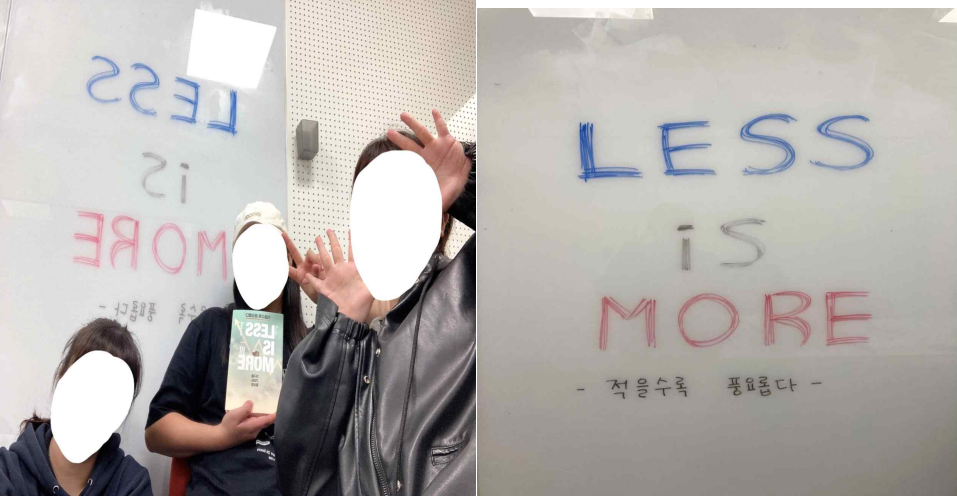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고 충격적이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고 알아가서 좋았다.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실천해 나가면서 조금 더 나은 나,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같아 뿌듯했다.

실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봤는데 다른 이들이 실천하였던 방법들을 보면 많은 사람이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음 주에도 새로운 실천 방안들을 해볼 생각에 기대된다.

2023년 10월 12일

참가자대표 : 강*민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비즈니스 사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0월 19 일 (목요일) / 장 소 : 일송도서관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강*민	학번	2019****	이름	김*나
	학번	2019****	이름	강*란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2회기] 서기 - 김*나 2장. 저거너트의 등장</p> <p>*북토크 사진</p>  <p>1) 인상 깊었던 내용</p> <p>[강*민] p136 ”GDP는 나쁜 것들을 빠뜨릴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도 다수 누락한다. GDP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계산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것이 인간의 삶과 행복에 중요하더라도 말이다.“ -> 우리나라에 대입했을 때 GDP만 보고 경제성장률을 보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우울증 1위 등 과연 이러한 문제들도 품고 있는데 진정한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GDP에 대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p>							

p159

”인도는 1인당 1.9톤밖에 배출하지 않는다. 중국은 1인당 8톤을 배출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인의 배출량은 1인당 16톤으로, 이는 중국인의 두 배, 인도의 여덟 배에 해당한다.“

->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 받았을 때, 중국이 가장 탄소 배출량이 많다고 들어왔는데 사실상 미국이 배출량이 크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인도와 중국이 배출량이 높은 이유는 다른 선진국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인데 이 문제를 두 나라에 떠넘기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강*란]

p138

”서구 경제는 1970년대 말부터 성장이 둔화하기 시작했고, 자본 수익도 감소했다. 정부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자본을 위해 ‘해결책’을 만들라는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노동법을 폐기했으며, 핵심적인 환경 보호법을 폐지했고, 자본의 접근이 금지되던 공공자산(즉 광산, 철도, 에너지, 물, 의료, 통신 등)을 민영화해 민간 투자자에게 수익성 높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 경제성장을 본질적인 이유가 모두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그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환경 인권 등 모든 요소를 무시하고 자신의(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수익만을 위해 행동한 거 같아서 이것이 의미 있는 움직임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다.

[김*나]

p141

“구조조정으로 초국적 기업들은 기록적인 이윤을 올릴 수 있었고, 가장 부유한 1퍼센트의 소득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

-> 구조조정이 해결책이긴 했으나 손해를 입은 사람이 많았다. 서구의 성장률은 회복시켰으나 남반구 사람들의 삶을 희생한 대가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장 부유한 1퍼센트가 많은 사람의 삶을 동의도 없이 짓밟았다.

“지구는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것들을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배출물, 화학약품 유출 등 폐기물도 흡수하고 처리하는 복원력을 갖고 있다.”

-> 지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복원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버리는 배출물, 화학약품 유출 등의 양이 너무나 많아서 지구가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가 모두 지구의 복원력을 유지할 방안을 모색해서 복

원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토론- 우리의 삶에 침투해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게 만드는 판매업체들은 무엇이 있을까?

[강*란]

아이들 음반 판매업체들

-> '미공개 포토 카드'를 갖기 위해서 음반 업체마다 포토 카드의 종류를 다양하고 희귀성 있게 만들어서 대량으로 구매하게 만든다. 요즘은 CD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토 카드 한 장만을 위해서 수많은 종이와 플라스틱이 담긴 앨범을 여러 장 구매하게 한다. CD는 플라스틱임에도 재활용할 수 없어 일반쓰레기로 분리된다. 환경오염에 주범이 된다.

[김*나]

인형

-> 우리의 삶의 침투에 있지만 사실상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그것 중의 하나가 인형이라고 생각한다. 겉보기엔 이쁘지만, 개인의 만족과 소유욕을 위한 존재이고 재활용도 불가능하여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어릴 때부터 인형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인식하기 어렵다.

[강*민]

패스트 패션

-> 사X, H & X, 온천 X, 유니클 X 등 소위 지금 유행하는 옷 같은 경우 현재 1년 안으로 입고 유행이 끝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만 옷을 사 입고 유행이 지나면 버리게 된다. 폐기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들을 생각해 보면 패스트 패션에서 나오는 옷들은 크게 필요 없지만 자연을 파괴하는 상업이라고 생각한다.

3) 토론 - 대기의 식민화라는 과정을 봤을 때 과연 남반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강*민]

북반구가 남반구를 또 다른 측면으로 식민지화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결론적으로 남반구 쪽에서 즉, 개발도상국에서 생성되는 모든 제품은 그 나라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닌 수출되는 제품이 대다수일 텐데 그것을 사용하는 북반구가 자신의 국가

에서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적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생각한다.

[강*란]

북반구는 이미 남반구를 약탈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발전을 이미 다 끝낸 상황에 인제 와서 뒤늦게 발전하려는 남반구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북반구가 남반구에서 지원을 통해 서로 동등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나]

북반구가 남반구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 것은 맞지만 남반구는 일을 받은 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남반구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북반구가 책임지기 싫어서 떠넘기는 그것으로 생각한다. 북반구가 주체적으로 남반구와 협업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이번 주 실천

[김*나]



->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고 음료 텀블러에 포장하기

[강*민]



-> 근무 때 텀블러 사용으로 플라스틱과 종이컵 사용 줄이기

[강*란]



-> 포장 용기 쓰지 않고 음식을 집에 있는 냄비 활용하여 포장해 오기

5) 이번 회기 북토크 활동 후 소감

[김*나]

-> 1장에서 인클로저를 알았다면 2장에서는 저거너트(끊임없이 확장하기 위해 프로그래밍된 멈출 수 없는 기계)가 등장한다. 친구들의 의견으로 "GDP 수치만 가지고 진정한 선진국이라 말 할 수 있는가?, 배출량이 많은 나라에만 문제를 떠넘기는 것이 맞는가?,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과 인권 등 모든 요소를 무시하는 것이 의미 있는 움직임인가?" 등 책 내용을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의문점을 서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의문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GDP를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다른 나라 탓만 한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더불어 경제성장만을 위해서 많은 요소를 무시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데 사게 되는 것들에 무엇이 있는지 의견을 나누었는데 음반, 인형, 옷 등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앞으로 불이 필요한 소비(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강*란]

->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태어남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음에 놀랐으며, 발전을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환경을 파괴한 인간의 이기심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인클로저'는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책을 읽으면서 인클로저는 어떻게 보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어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환경을 파괴하고, 농민들의 노동력을 착취시키는 등 막대한 손해를 끼치기도 하였기 때문에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주에 한 번씩은 꼭 실천을 해보기로 하였다. 음식을 포장할 때 일회용 포장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사용하던 다회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포장해 왔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은 물론 포장 비닐 사용을 줄일 수 있었다.

[강*민]

-> 적을수록 풍요롭다 2장 저거너트의 등장이다. 저거너트란, 무자비하고 파괴적이며 막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힘을 말한다. 책에서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세태를 저거너트로 비유하고 있다. 우리는 경영을 배우면서 지속적인 성장, 지속적인 경영에 대해 익히 듣고 배워왔다. 경영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기업의 영속을 지탱하는 만큼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책에서는 자본주의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특징이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환경문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반적 다양한 문제들을 말이다. 하나의 문제가 엮여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가치를 보니 어디서부터 잘 못된 것인지 왜 새로운 시대와 관점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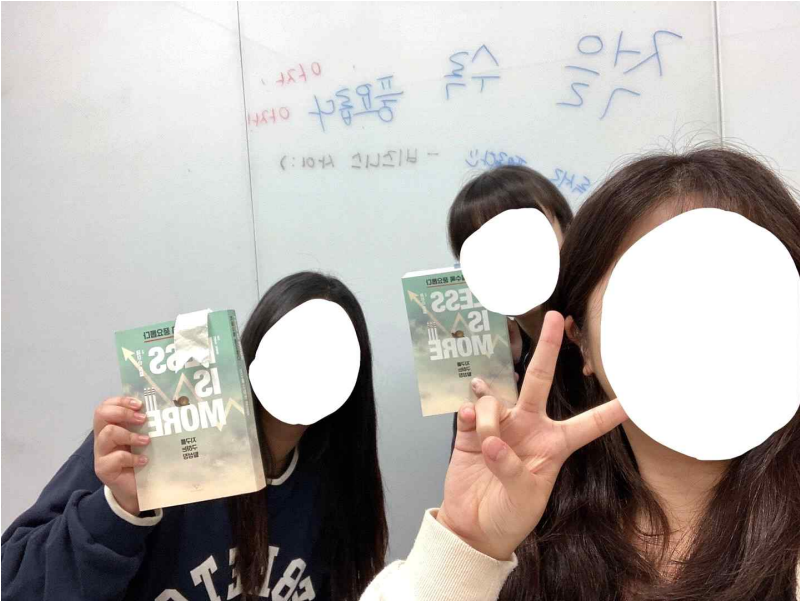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GDP에 다시 생각해 보고 새로운 정의를 내려봤다. 또한 식민지에 관한 생각과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들의 책임들에 관해서도 이야기 해봤다. 무거운 주제이지만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친구들과 매우 새로운 실천을 하고 있는데 서로 했던 실천을 공유하면서 다음에는 나도 친구들이 했던 실천을 해봐야지 하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라 뜻깊다. 생각보다 별로 힘든 일들이 아닌데 이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한 나날들이었다.

2023년 10 월 19 일

참가자대표 : 강*민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비즈니스 사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 장 소 : 한림대학교 일송도서관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강*민	학번	2019****	이름	김*나
	학번	2019****	이름	강*란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3회기] 서기 : 강*란 3장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p> <p>* 북토크 사진</p>  <p>1) 인상 깊은 내용</p> <p>[강*란] 192p “ 우리는 (소수의 수력·지열·핵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배출을 제로로 하는 데 어떤 물질이 필요할지 추정할 수 있다. 결과는 놀라웠다. 구리 3400만 톤, 납</p>							

4000만 톤, 아연 5000만 톤, 알루미늄 1억 6200만 톤, 철은 48억 톤 이상이 필요하다.”

→ 재생에너지를 얻기 위해 이렇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양의 물질이 필요한 지 처음 알게 되었다. 저 물질들 말고도 네오디뮴, 은 등 더욱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 환경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얻고자 하는 재생에너지가 주요 광물이 고갈됨을 넘어서 광물의 과도한 추출 위기를 악화시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환경을 위해 환경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인데 모순된 것 같다. 공격적인 물질 추출이 되지 않게 해결책을 꼭 찾아야 할 것 같다.

213p

“재활용 비용은 그동안 감소했고 나아지지 않았다. 2018년 세계 경제는 재활용 비율 9.1퍼센트를 달성했다. 2년 후에는 재활용 비율이 8.6퍼센트로 감소했다.”

→ 계속해서 재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재활용을 실천해 왔다. 하지만 재활용 비율이 10퍼센트조차 되지 않는 것과 그것도 모자라 비율이 감소해 왔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책에서 ‘재활용에는 돈이 들고, 재활용된 물질에 내는 비용은 지속해서 나머지를 창출하기가 더욱 어렵다.’라고 쓰여 있는데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에도 돈이 들고, 환경을 위해 재활용에 힘을 쓰는 것인데 나머지 창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김*나]

201p

“우리가 화석연료로 하는 바로 그 일을 할 것이다. 숲을 더 많이 파괴하고, 저인망으로 물고기를 더 많이 잡고, 더 많은 산을 채굴하고, 도로를 더 많이 건설하고, 산업형 농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쓰레기를 매립지에 보낸다.”

→ 청정에너지로 바뀌도 결국엔 에너지로 하는 일들이 자연을 더 많이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태계를 망친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고자 청정에너지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자연을 위한 일인가, 우리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221p

“물이나 종자뿐만 아니라 지식, 노래, 녹색 공간, 심지어 육아, 신체적 접촉, 어쩌면 공기 자체도 사적으로 소유되고 상업화되어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되파는 경제를 상상할 수 있다.”

→ 앞에 인클로저처럼 대가 없이 공짜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보다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더 처참하다고 느껴졌다. 나중에는 당연한 것까지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오는 것 같다. 환경을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많아지고 있고, SNS에서도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다들 자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지 또 다른 산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강*민]

199p

“단순히 ‘자연’으로 표현되는 삶이 있는 지구는 억제당하고 정복되며 제어될 수 있는 수동적인 물질 모음에 불과하다는 생각 말이다.”

→ 전에 봤던 데카르트의 이원론의 충격처럼 지구공학일 것 자체의 전제가 자연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한낱 인간이 이런 거대한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참 이기적이고 허황한 존재라고 생각되었다.

214p , 217p

“성장은 ‘외부’를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 ‘외부’는 가치를 공짜로 추출할 수 있거나 가능한 공짜에 가깝게 얻을 수 있는 외적 원천이다.” (214p)

“자본주의는 늘 외적인 것, ‘외부’를 필요로 했으며, 외부로부터 가치를 공짜로 약탈했으나 그에 상응하여 되돌려 준 것은 없었다.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부채질한 것이다. 물질 추출과 쓰레기에 제한을 두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사실상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217p)

→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킨다. 환경은 공짜로 쓰는 것뿐이다. 근데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고 그랬던 기술은 환경을 위한 기술이었다. 알고 보면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활용해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핑곗거리일 뿐이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와 성장이 것은 환경을 오염시킬 뿐인 전제조건이었다. 아닌 척하고 있지만 환경을 오염시켜 왔다.

2) 토론-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강*란]

우리는 여태껏 꾸준히 발전해 온 기술로 편하게 생활해 왔고,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책에서 언급했듯이 기술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양의 물질을 사용하고 환경 파괴가 계속 지속되어 우리의 삶에 피해가 간다면 기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될 거로 생각한다.

[김*나]

미래에 기술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환경을 덜 오염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술이 환경이 오염되는 속도를 못 따라갈 것이다. 환경이 오염되는 속도를 따라가려면 더 많은 환경오염과 화석연료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고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야

하며,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기술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강*민]

우리가 계속해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술이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왔다. 하지만 별 소득 없이 환경은 파괴되고 있다. 결국엔 성장을 멈추고 자연 보전에 힘을 써야 한다. 짧게 보면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지만, 길게 보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3) 토론- 경제성장 vs 자연 보전

[강*란]

자연 보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이 파괴되어 살아가는 환경 자체에 불편함을 겪게 된다면 여태껏 성장 및 발전을 위해 해왔던 노력은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된다고 생각한다.

[강*민]

환경, 경제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자연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경제성장은 개인, 기업,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또 다른 방면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그래서 둘 다 공존해야 하므로 ESG 경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나]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현실적이게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환경이 오염되고 있어도 당장 개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를 보는 시각은 성장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등 우리가 지금까지 일궈낸 사회 질서의 무너짐을 초래할 것이다.

4) 이번 주 실천

[강*란]



-> 텀블러를 사용해 커피를 포장하여 일회용 컵이나 빨대 사용을 줄였다.

[김*나]



-> 다회용기에 만두를 포장하여 일회용 포장 용기 사용을 하지 않았다.

[강*민]



-> 카페에서 개인 스테인리스 빨대 사용하였다.

5) 이번 회기 북토크 활동 후 소감

[김*나]

-> 3장,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 책을 읽기 전이라면 당연히 구원하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책을 읽고 난 후에는 기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술의 발달로 화석연료를 엄청나게 사용하면서 숲, 바다에서 온갖 채굴 하고 도로를 짓고 농업을 확장하게 시킨다. 그러면서 더 많은 쓰레기를 매립지에 보내고 있다. 인간의 손으로 자연 망치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경제성장은 당연하고 더 높은 성장을 향해 지속할 수 있는 경영에 관한 생각만 해왔지.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미래에는 공기 자체도 사적으로 소유되고 상업화된다는 글을 보고 경제성장만 보고 달리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 인지를 깨달았다. 환경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 개인 SNS에서 환경을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자연을 지키기 위함인지 또 다른 이윤을 위해 보여주기식인지 의문이 들었다.

[강*란]

-> 사회는 우리에게 재활용의 필요성을 가르치고 실천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 책은 재활용의 비율은 10퍼센트조차 되지 않으며 비율이 더 감소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다. 또한 재활용에는 돈이 들고, 잉여를 창출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 파괴되지 않게 재활용하는 것인데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잉여를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 파괴되면 그 돈을 쓸 기회는 점점 사라지게 될 텐데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이 들기도 했다.

[강*민]

-> 적을수록 풍요롭다 3장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이다. 이 책을 혼자 읽었더라면 과연 다 읽을 수 있었을까 싶다. 하지만 북토크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읽다 보니 벌써 반이나 읽었다. 읽을수록 세상에 대한 배신감이 드는 것 같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간다. 이번 챕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래 가진 인식 자체를 바꿔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책에 따르면 아니었다. 기술을 통해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편리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구원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원래의 석유나 석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석유 + 석탄 +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또한 자원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하는 것이다. 알지만 국가, 기업 모두 '성장'해야 하므로 앞서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우리를 현혹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제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도태되기 때문이다.

재활용에 관한 이야기도 다소 충격적이었다. 우리가 하는 재활용이 정상적으로 재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처리하는 비용도 매우 많이 든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재활용해야 한다고 배워왔고 잘 실천하고 있다. 과거에 미국에 갔을 때 재활용을 개별 음식물,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모두를 같은 봉지에 넣어서 버리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쓰레기를 처리하기는 편안하지만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미국은 나만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이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폐기물, 음식물을 다 같이 혼합하여 버린다고 생각해 충격에 휩싸였었다. 이런 기억이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 이장이기도 했다. 현재 부유한 국가들의 책임. 과연 그들은 자연에 대해서 탄소중립을 외치고 자연 보전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더 큰 노력을 하면서 자연 보전을 위해 우리의 지구를 위해 노력하는지 의문이 드는 장이기도 했다.

2023년 10 월 26 일

참가자대표 : 강*민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비즈니스 사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1 월 1 일(화요일) / 장 소 : 카페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강*민	학번	2019****	이름	김*나
	학번	2019****	이름	강*란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4회기] 서기 : 강*민 4장 좋은 삶의 비밀</p> <p>* 북토크 사진</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1) 인상 깊은 점</p> <p>[강*민]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가진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덜 행복한 경향을 보인다.~ 사회적 신뢰와 응집력 그리고 연대를 잠식한다. 또한 더 열악한 건강, 더 높은 수준의 범죄율, 더 낮은 사회적 이동성과 연결된다. 불평등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p>							

좌절감을 더 많이 느끼고, 불안해하고 불안정하며, 자기 삶에 불만을 갖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더 높은 우울증과 중독 비율을 보인다.”

-> 우리 사회 전반적인 사회 문제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돈의 중요성에 대해 암묵적으로 배운다. 행복 = 돈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책에서는 사실상 적정선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기본적 신념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차 나아가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시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돈은 어디로 가는가? 그로부터 누가 득을 보는가? 생태계 붕괴의 시대에 전체 산출의 4분의 1 가까이가 백만장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경제를 정말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 인간이란 존재는 사고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 자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 주위 모든 동식물, 사물을 인지하고 사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의 시대상에 그저 받아서 드리기만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깨달아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지 말이다. 원래 이런 거니까 다 아닌 생각하고 질문함으로써 세상을 마주 보고 행동해야 한다.

[강*란]

“이론상으로 공공재에 투자하고 소득과 기회를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기만 하면, 현재 가진 것보다 적은 GDP로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사회적 지표를 달성할 수 있다.”

-> 어디서든 GDP가 높은 게 좋은 것이라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GDP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적은 수준의 GDP로도 기대수명이 늘고, 높은 교육 수준을 달성하는 등 놀라운 결과를 나타낸 나라들이 소개되었다. GDP에 과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또한, 소득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기만 하면 적은 GDP로도 사회적 지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나는 현재 사회가 이기주의가 심하다고 생각한다. 과연 모두에게 소득과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될 날이 올까? 라는 의문점들이기도 하였다.

“무슨 대가를 치르든 상관없었다. 환경보호를 철폐하든, 노동법을 무력화하든, 보건과 교육 예산을 삭감하든,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줄이든 말이다. 퇴행적으로 보이거나 단기적으로 조금 해로울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유일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다.”

->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비와 복지비용을 삭감하고 있는데 삭감하게 되면 부정적인 것을 알지만 장기적 단기적으로 다 해로운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지배층의 이기심을 보여주는 시대적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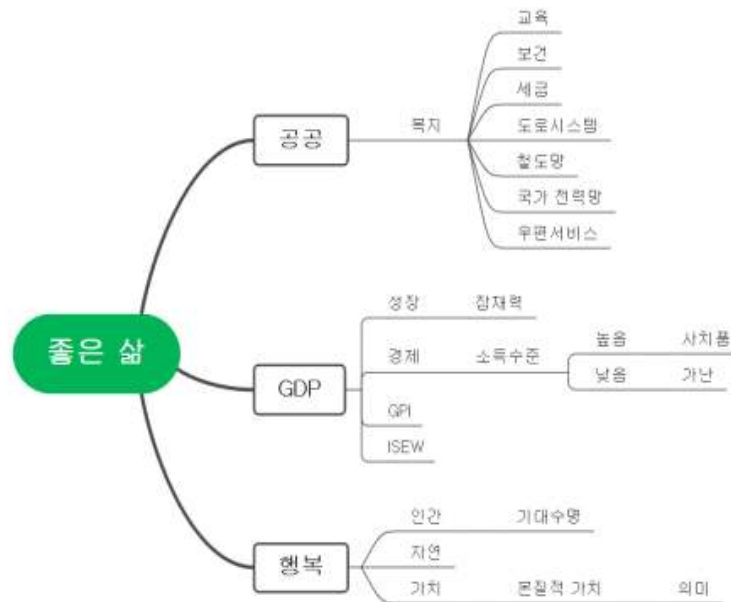
“고소득 국가에서 성장 추구가 지속되면서 불평등과 정치적 불안정성을 격화시키고 있고, 과로와 수면 부족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증, 오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 당뇨병과 심장병 등의 문제를 키우고 있다.”

-> 우리 현재 상황인 거 같아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이 문제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계속된 성장 추구는 인간의 노동력과 자연을 갈아 넣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두를 망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혁신의 과정 자체에 대해 말해보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정말로 삶을 바꾸는 기술들을 포함해 현대의 가장 주요한 혁신 중 다수는 성장 지향 기업들이 아니라 공공 기구의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 기업들이 광고를 통해 자사 기술력들을 광고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들이 혁신을 이뤘을 거로 생각할 것 같다. 하지만 혁신과정에는 공공 기구의 재정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키워드를 중심으로 마인드맵 만들기



3) 토론 - 경제성장(GDP) 와 복지수준(기대수명, 교육 수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였을 때 경제 vs 복지? (코스타리카 vs 아르헨티나)

- 행복지수 1위 국가 사람들은 달랐다 [힐링 영상]
- 세계에서 손꼽는 복지국가에서 빈곤국으로 추락한 아르헨티나 |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 다큐프라임 - 혼돈의 시대 중앙은행이#골라둔 다큐

[강*민]

코스타리카 영상을 보면서 우리나라와 다른 마인드를 보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매일 매일 빠르게 흘러가는 한국 사회에서 조금의 휴식도 주어지지 않는데,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마인드가 신기했다. 우리 모두 같이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당연하지 않은 문화적 사회적 차이들을 신기해하고 기본의 질서를 깨는 느낌이 들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보면 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발생하여 파산의 위기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과한 복지가 아니라면 경제성장보다는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책에서처럼 이미 많은 성장을 이뤘고 신자유주의 정책과 반대되는 자연을 위한 인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란]

아르헨티나의 현 상황을 보고 너무 복지만을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다. 물론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지도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복지가 보장되려면 먼저 경제성장이 되어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를 배제할 수 없는 거 같다. 삶을 살아가면서 경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타리카의 자연 풍경과 마인드를 동영상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코스타리카처럼 다른 나라들이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인드를 배운다면 자연을 회복시키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아르헨티나 영상을 보고서 물가안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날마다 바뀌는 물가와 심해지는 빈부격차 나라가 정말 휘청거릴 정도로 경제적인 요소도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경제와 복지의 균형을 찾고 유지하면 경제성장만이 아닌 지속할 수 있는 경영 방안을 모색해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4) 이번 주 실천



-> 다 같이 카페에서 개인 빨대를 가지고 와서 사용해 보기
수중에 잘 버려지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5) 이번 회기 북토크 활동 후 소감

[김*나]

4장, 좋은 삶의 비밀을 읽고 과연 우리는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 있었다. 성장 추구가 지속되면 불평등과 정치적 불안정성은 격화시켜, 과로와 수면 부족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증, 오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 당뇨병과 심장병 등의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누굴 위한 성장 추구가 하는 의문점과 성장 추구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계속된 성장 추구는 인간의 노동력과 자연을 갈아 넣기 때문에 결국 미래에 이득을 볼 수 없을 것이며 경제성장, 수치에만 현혹되어 더 나은 현실에 살고 있다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4장을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같이 그려보면서 생각을 정리 할 수 있었고 서로 중요한 키워드를 말하면서 책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책과 관련한 동영상 2개를 보면서 한국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 신기했고 코스타리카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와 복지 중 복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동영상을 보고 난 후에는 둘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주 실천은 다 같이 카페에 모여 일회용 빨대가 아닌 다 회용 빨대를 가져와서 사용해 보았다. 혼자만 하다 여러 명이 함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부듯했고 책을 통해 이렇게 변화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서 좋았다. 플라스틱 빨대는 재활용이 어려운데 앞으로 아예 안 쓰거나 종이 빨대만 이용해 보도록 노력해야겠다.

[강*란]

-> GDP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무조건 GDP가 높아야 좋은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 책에서는 낮은 수준의 GDP로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이 소개되었다. GDP에 대한 집착을 멈추어도 된다. 책이 말해준 것처럼 공공재에 투자하고 소득,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사회가 어서 찾아왔으면 좋겠다.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욕심은 조금씩 덜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활동을 통해 4장의 키워드를 정하면서 다시 한번 책의 내용을 되새겨보며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강*민]

-> 적을수록 풍요롭다 4장 좋은 삶의 비밀이다. 이번 회기는 학교가 아닌 처음으로 카페에 모여서 하게 되었다. 카페에서 하는 만큼 우리가 만나서 실천할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하던 중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게 되면 컵은 재사용할 수 있지만 빨대 같은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각자 재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빨대를 챙겨왔다. 각자 크기도 재질도 다른 빨대이었다. 카페 사장님께 '저희는 빨대 안 주셔도 돼요'라며 이야기할 때는 사장님의 반응이 되게 의아해하며 반응 하셨지만, 우리가 개인용 빨대가 있다는 말에 되게 기특해하셨다.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물음을 책에서 우리에게 던졌다.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장이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번다고 한다.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돈보다 중요한 것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고소득 국가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과로와 수면이 부족하게 한다. 다양한 스트레스를 통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도 취약하게 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여 성장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데 거리낌이 없어진다. 이는 다시 현대인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는 매우 비인간적이다. 어느 순간 성장이란 목적을 위해 인간은 수단으로 사용된다.

책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제적 지표인 GDP도 허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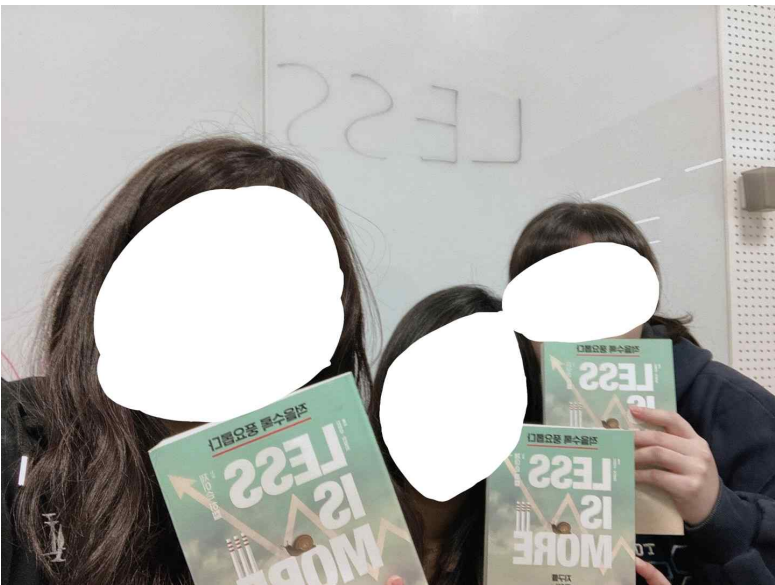
책에서 많은 부분을 새로 알고 북토크를 통해 토론하면서 새로운 사례들도 발견했다. 좋은 삶이라는 주제로 마인드맵도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삶의 필수요소와 책에서 말하는 좋은 삶의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다. 마인드맵을 만들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다양한 사례의 나라들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 안에 경제와 복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서로 토론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서로의 의견에 대해 알아보면서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 다시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23년 11 월 1 일

참가자대표 : 강*민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비즈니스 사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 장 소 : 일송도서관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강*민	학번	2019****	이름	김*나
	학번	2019****	이름	강*란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5회기] 서기: 김*나 5장 포스트 자본주의 세계로 가는 길</p> <p>* 북토크 사진</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1) 인상 깊은 점 [강*란] 275p “매출 늘리기에 필사적인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 지나면 망가져 교체가 필요한 제품들을 생산하려 애쓴다. 이 관행은 1920년대에 처음 개발되었는데, 당시 미국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끄는 전구 제조</p>							

업체들이 카르텔을 만들어 백열등의 수명을 평균 2500시간에서 1000시간 또는 그 이하로 줄이는 모의를 벌였다. 효과는 기가 막혔다. 판매가 올라 갔고 이윤이 치솟았다. 이 아이디어는 다른 산업들에서도 재빨리 채택되었고, 오늘날 계획적 진부화는 자본주의 생산 전반에 널리 퍼진 특징이 되었다.”

->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매우 공감이 된다. 뒤에서도 애플을 언급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핸드폰을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핸드폰 고장이 빨리 나서 1~2년 만에 바꾸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스타일? 습관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 텐데 왜 더 빨리 고장이 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도 했는데 1920년대부터 제품의 수명을 서서히 줄여가는 관행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무리 이윤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과도한 물질을 사용하고, 옳지 않은 관행을 따르는 것을 국가적으로 제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 또한 새롭고 좋은 성능의 물건들이 나와도 아직 사용하는 것들이 멀쩡하면 구매를 자제해 보는 것이 어떨지 싶다.

295p

“노동시간 단축이 사람들의 좋은 삶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신나는 부분이다. 이런 영향은 거듭거듭 예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들은 놀랍다.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소득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짧게 일하는 사람들이 길게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프랑스가 주당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였을 때, 노동자들은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스웨덴의 한 실험은 3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인 종업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보고했다. 또한 데이터는 더 짧은 노동시간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에 더 만족감을 느끼며 사기와 행복도 진작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 근로제도를 69시간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와 정말 비교가 된다고 느꼈다. 많은 나라들이 짧은 노동시간으로 더욱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왜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것일지 싶다. (솔직히 69시간제를 제안한 사람도 69시간 일하라고 하면 절대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안 그래도 OECD 회원국 중 행복지수가 최하위권(2022년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OECD 38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36위이다.)인데 이러한 개편은 더욱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노동시간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민]

P272

“이것이 우리가 의미라는 ‘탈성장’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탈성장은 GDP를 줄이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경제의 물질과 에너지 처리량을 줄여 생명 세계와 균형을 이루도록 되돌리는 것, 그러면서 소득과 자원을 더 공정하게 배분하고, 사람들을 불필요한 노동에서 해방하며, 사람들이 번영하는 데 필요한 공공재에 투자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 이 책의 주제의식은 한 줄로 설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책에서 주구장창 주장한 것처럼 줄이는 것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새로운 에너지가 아닌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 생각했다.

P283

“사람들은 더 행복해졌다. 스스로 더 나은 확신을 두고 본인의 삶에 더 만족하게 되었다. 광고 줄이기는 사람들의 좋은 삶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광고를 금지한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행복해졌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기 위해서는 남과의 비교를 차단하고 나 스스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했다. 광고가 사람의 심리를 움직이는 만큼 우리가 그걸 알고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가겠고 생각하게 만든 문장이었다.

[김*나]

p287

“고소득 국가들에서는 외관상 예쁘지 않은 채소를 버리는 농민들, 불필요하게 엄격한 유통기한을 적용하는 슈퍼마켓들, 공격적인 광고, 벌크 할인, 원 플러스 원 방식 때문에 일어난다.”

-> 식품 폐기가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음식물 쓰레기는 비료가 되는 줄 알았다. 외관이 좋은 채소나 과일은 더욱 비싸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과일이나 채소들은 쉽게 버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못난이 상품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더욱 알

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하던 소비들이 올바른 소비가 아니라 광고와 원 플러스 원에 현혹되어 있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다. 나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자연을 헤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불필요한 소비도 줄여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다.

p323

“사람들은 실제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버드-예일 팀은 사람들을 그룹으로 나누고 모든 세대에 걸쳐서 관리되어야 할 공통 자원들의 일부를 각각의 몫으로 제공했다. 평균 68퍼센트의 개인들이 자신들의 몫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쪽을 선택했다. 재생할 수 있는 만큼만 저수지를 이용하고 더 얻을 수 있었을 이윤을 포기함으로써 미래 세대들이 살아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68%의 사람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원의 고갈을 막고 적당히 자연을 사용하려는 마음을 가졌지만, 나머지 32%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을 빠르게 가속하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 적어도 85% 이상의 사람들이 자연을 지키려고 노력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은 수치에 놀랐고 미래 세대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놀랐다. 32%의 소수의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남은 68%의 사람들이 노력함에도 자원고갈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 안타깝고 이러한 개인의 이기심을 어떻게 해야 없애고 자연을 살릴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2) 토론 - 책 내용 중 제품의 보증기간 의무 연장 제도에 대한 각자 의견은?

[강*란]

찬성 보증기간이 길면 수리할 때 수리비가 비싸서 애플 같은 경우도 보증기간이 지나면 수리비가 비싸진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하는 게 더욱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보증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강*민]

찬성 소비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환경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보증기간이 늘어나면 제품을 오래 쓸 수 있고 돈과 폐기물이 줄어들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김*나]

반대 기업에 입장에서는 성장할 수 없게 되니까 보증기간이 길면 기업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해라고 생각한다. 제품을 파는 기업이라면 제품을 판매하면서 기술이 업그레이드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소비자들 삶의 질을 향상할 기회를 날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3) 토론-저자는 소유권에서 이용권으로 전환하는 의견을 냈는데 반대로 전환하게 된다면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

[강*민]

-관리의 문제

누가 관리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규모로 관리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으면 너무 과한 관리일 경우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너무 적은 관리를 할 경우 이용권의 가치가 떨어진다. 과연 소유권을 가진 자들이 느끼는 편안함과 가치를 버리고 이용권으로 전환 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강*란]

-프리미엄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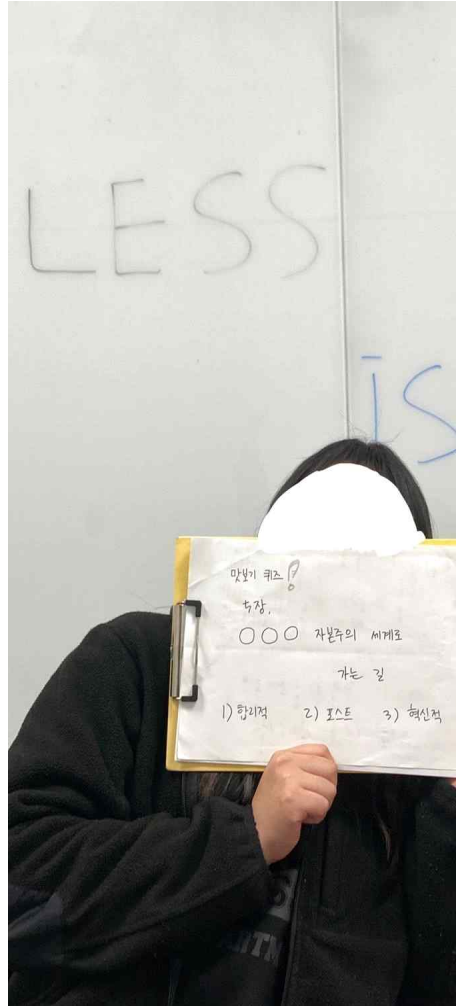
이용권이 다수가 모두 필요로 할 시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이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이렇게 되면 물량이 부족하면 프리미엄 거래가 생기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한다.

[김*나]

-반납의 문제

고등학교 때 양심 우산이라고 이용권을 부여하여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빌려 가면 가져오지 않고 자신의 것이 아니다 보니 함부로 사용하고 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책 내용처럼 이용권을 부여하면 이러한 비슷한 문제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용권을 부여하면 자신의 물건이 아니다 보니 책임감이 없어지고 도덕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다.

4) 책의 핵심 퀴즈



20점
 1. ○○에 맞춰 행동해서는
 세계를 구할 수 없어요,
 ○○이 바뀌어야 하는 거니까요.
 - 그레타 퓌베리
 1) 구월 2) 기록 3) 상항
 4) 귀직 5) 로점

30점
 5. 순서대로 나열하기
 6. 광고 줄이기
 7. 소유권에서 이용권으로
 8. 계획적 진부함을 끝내기
 9. 식품 폐기 없애기
 10. 생태계를 대리하는 산업의 규모 줄이기

20점
 6. 판매가격은 왜? 0000가
 많게 압축 제품을 인위적으로 단명하게
 만들지 새로운 필요를 창출하고자 한다.
 1) 10분 2) 정면명령 3) 그레타
 4) 증권거래소 5) 데이비드

30점
 8.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작기적으로
 비참 함적 위해 탐험을 선택했고,
 사람들을 재편자하려 했어주었다.
 이 원작은 허버트의 000 000
 제조화되었는데, 7년마다 부채가
 자동으로 탕감되었고 선언했다.

: 단순히 책만 읽고 인상깊은 점만 나누는 활동에서 끝이 아니라 더욱 심층적으로 매주 심비우스를 이끄는 사람이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유롭게 준비한다. 이번 주는 퀴즈를 직접 준비하여 소소한 상품을 가지고 활동을 진행해 보았다. 다들 책을 열심히 읽은 덕분에 아주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문제를 내면서 책의 내용을 다시 되새길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책의 내용을 더욱 오래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책 주제에 맞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고 토의를 진행한다. 각자만의 방식으로 주 1회 실천 인증을 하면서 실생활에서 심비우스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녹아있음을 알 수 있다.

5) 이번 주 실천 인증

[김*나]



90% 재생 유리 메탈프리 펌프 FSC® 인증 종이

① ② ④

③ ⑤

그린가드 골드 인증 라벨 인쇄 분리가 용이한 리무버블 라벨

지구를 지키는 분리배출

분리배출 가이드

○ 재활용 등급 : 우수	① 캡(OTHER) : 종량제
② 펌프(OTHER) : 플라스틱	③ 용기(PCR 90% 유리) : 유리
④ 단상자(종이) : 종이	⑤ 라벨(PP) : 비닐

*내용물은 물로 세척하여 배출해주세요

분리해 배출하기 쉬운 화장품 구매

->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분리, 배출이 가능한 화장품을 구매하여 자연에 관한 관심,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었다.

[강*민]



리사이클 가방 제작

-> 안 입는 옷을 재활용하여 가방으로 만들면서 활용성을 높였다.

[강*란]



-> 장 볼 때 박스나 비닐 대신 수레 활용하기 장바구니를 활용하면서 환경 오염을 덜 시킬 수 있었다.

5) 이번 회기 북토크 활동 후 소감

[김*나]

5장, 포스트 자본주의 세계 가는 길을 읽고 자본주의에서 포스트 자본주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용 중 쓰레기만 환경오염이 아닌 음식물 쓰레기까지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처음 알게 되어 적잖이 충격이었다. 음식물은 비료로 다 쓰이는 줄 알고 관심 없던 나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대부분 좋은 과일을 고르고 흠집 있는 과일이나 들나물들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서 소비되기 힘들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환경오염을 줄이려면 먹을 만큼만 적당히 담아 먹고 폐기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잔반을 최대한 줄여보고 싶다. 토의 내용 중 제품의 보증기간 의무 연장 제도에 대해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이해해 보고 납득이 가는 부분은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어서 책을 편파적으로 보지 않고 중립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 같다. 마지막으로 책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퀴즈를 만들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들 책을 열심히 읽은 덕분에 아주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문제를 내면서 책의 내용을 다시 되새길 수 있어서 좋았다.

[강*란]

-> 토의를 통해 보증기간 의무 연장 제도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나는 경영학과에 재학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업의 입장보다 소비자의 입장에 가까워서 제도에 찬성하는 태도에 손을 들었다. 기업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친구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충분히 기업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다. 책의 핵심 내용을 퀴즈로 준비해 준 친구 덕분에 재밌고 쉽게 책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강*민]

-> 적을수록 풍요롭다 5장 포스트 자본주의 세계 가는 길이다. 포스트 자본주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책에 제목처럼 적을수록 풍요롭기 위해서 책에서 나온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계획적 진부화를 끝내기, 광고 줄이기, 소유권에서 이용권으로 바꾸기, 식품 폐기 없애기, 생태계를 파괴하는 산업의 규모 줄이기, 불평등 줄이기, 공공재를 탈상품화하고 커먼즈를 확장하기. 이렇게만 보면 허무맹랑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는 점점 변화해 나가고 있고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시대를 걸쳐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 이후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별로 큰일도 아니다. 계획적 진부화 애플이나 삼성만 봐도 알 수 있다. 엄청난 기술을 가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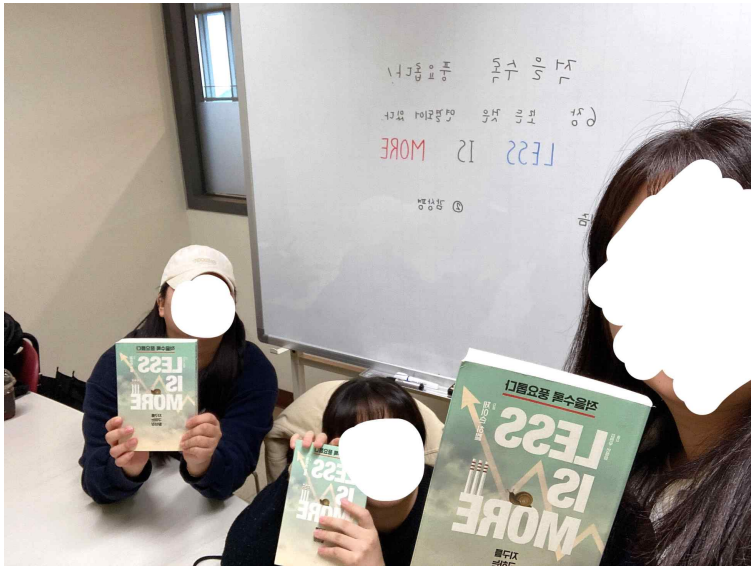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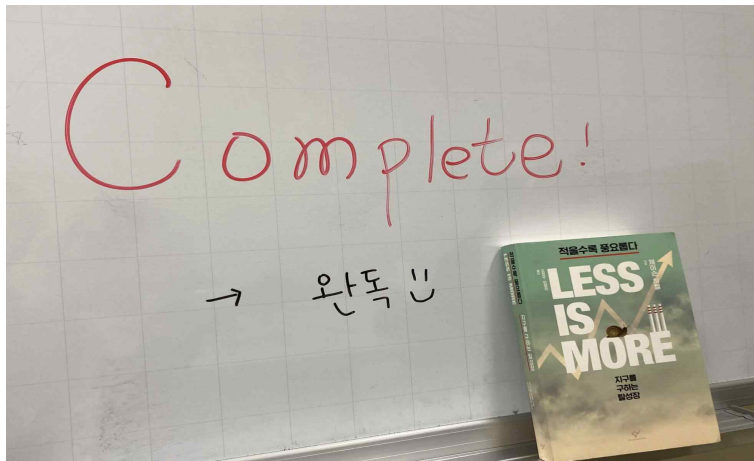
들이 1~2년밖에 못 쓰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은 더 많이 판매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계약이다. 사실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들을 바꾸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면서 돈이 먼저가 아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시대가 도래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회기에는 퀴즈를 통해서 책에 내용을 익혔는데 난이도가 조금 있었지만 경품도 있어서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북토크를 하니 토론만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책에 내용들이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다.

2023년 11 월 9 일

참가자대표 : 강*민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비즈니스 사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 장 소 : 한림대학교 일송도서관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강*민	학번	2019****	이름	김*나
	학번	2019****	이름	강*란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6회기] 서기 : 강*란 6장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p> <p>* 북토크 사진</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1) 인상 깊은 내용

[강*란]

332p

“2016년에 국제적 과학 연구팀이 라틴아메리카 열대우림의 재생장에 관한 가장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습윤림과 건조림 가릴 것 없이 생태계 전체에 걸쳐, 예전 산림의 90퍼센트를 순전히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데 평균 60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냥 내버려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 자연의 재생 능력에 대해 놀라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자연이지만 인간의 무분별한 산업 활동으로 인해 훼손 되어가고 있음에 안타깝기도 하며 인간의 이기심 또한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다들 욕심을 줄이고 알맞은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370p

“비윤리적인 것은 감사의 태도 없이, 호혜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비윤리적인 것은 당신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당신이 되돌려 줄 수 있는 것보다 많이 취하는 것이다. 비윤리적인 것은 착취, 추출, 그리고 아마도 가장 나쁜 것은 폐기다.”

-> 여러 물건을 사용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등등 살아오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감사함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왔다. 또한 굳이 사지 않아도 되고, 많이 먹지 않아도 되지만 순간 나의 욕심으로 인해 과소비하고 결국엔 얼마 되지 않아 폐기하게 되었던 지난날들을 떠올리고 반성하게 되었다. 이제라도 나에게 맞는 생활 및 소비 습관을 제대로 형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나]

332p

“부부는 1999년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6년 후, 1730에이커에 달하는 황무지가 희망찬 녹색으로 덮였다. 그리고 2012년이 되자 숲이 회복되었다. 샘이 다시 솟아났고 동물들이 돌아왔다. 새, 포유류, 양서류, 일부 멸종 위기 종들의 모습도 보였다.”

-> 단 두 명의 부부가 움직였을 뿐인데 황무지를 녹색으로 뒤덮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같은 인간으로서 자연을 살리려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다. 수많은 사람이 조금만 노력해도 멸종 위기 종들을 다시 살릴 수 있으며, 자연을 회복시켜 미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줄 수 있는데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344p

“생태계가 재생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의지하는 생태계를 파괴가 아닌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행위를 통해, 반드시 이를 되돌려 주도록 해야 한다.”

이러려면 할 일이 많다. 들어야 하고, 공감해야 하고, 대화해야 한다.

-> 자연을 이용하는 그것은 좋으나 적당히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활용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무분별하게 빼앗는다고 생각한다. 그냥 가져와서 이득을 취하고 낭비하고, 아무 데나 버리고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자연을 지키고 풍부하게 만드는 일에 들어주고 공감하고 대화하는 것을 통해 배우고 널리 알려야 한다.

365p

“모든 경우에서 숲을 걸었던 이들이 도시를 걸었던 이들에 비해 확실한 감정 향상을 경험했으며, 이에 더하여 긴장, 불안, 분노, 적대감, 우울, 피로가 하락했다. 효과는 직접적이고도 확실했다. 나무는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 연구자들은 나무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람들을 더 협동적이고 친절하고 관대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농촌을 가고 싶어 하는 이유도 안정을 찾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숲만 걸어도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무는 우리를 인간적으로 만들어 주는데 우리는 나무한 데서 모일 것을 뺏어간 나쁜 사람들이다.

[강*민]

343p

“결국 무언가를 착취하려면 먼저 그것을 인간보다 열등한 것, 즉 객체로서 간주해야 한다. 그러니 어떤 것도 인간보다 열등하지 않고, 모든 존재가 스스로의 권리를 갖는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 우리는 지금껏 자연과 인간을, 동물과 인간을, 인종과 인종을, 타인과 나를 나누고 비교하기 바빴다. 이런 모든 물체에 대한 이분화는 차별을 만들어 내는 것 같다. 우리가 배워온 지식의 바탕이 이분화라는 것 얼마나 철저하게 세계에 대한 우월주의에 찌들었는지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다. 자본주의 시대에 너무나 정형적인, 편을 가르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들이 이 이분화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책의 저자는 책을 통해 이분화보다는 통합하고, 자연이 자원이 아닌 자연은 인간과 같은 동일선상 안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67p

“나무들과 DNA를 공유하고 있기까지 하다. 수많은 세대를 거치며,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다른 인간들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나무에게 의지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 이웃들이다.”

-> 이 문장을 읽으며 생각난 것이 뉴욕시티 가운데 있는 센트럴파크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스럽고 건물이 많은 도시 뉴욕 맨해튼.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는 센트럴파크를 만들 때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 사례처럼 인간에게는 자연을 떨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든 마을인 도시가 결국에는 자연과 조화가 있어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사례 하고 생각한다. 인간이 도시에서 살아간 시간보다 자연에서 살아간 시기가 더 긴 만큼 자연 즉, 동식물과 인간의 DNA 공유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이어오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2) 토론 - 자본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애니미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강*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를 통해 발전한 상태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다. 내가 생각하기엔 애니미즘은 욕심을 덜어내고 과거의 산업 활동이 덜 했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생각한다. ‘단기간 만에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고 누리던 것을 포기하며 애니미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환경오염이 계속되어 생활할 수 없을 만큼 자연이 파괴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애니미즘을 받아들여 자연 재생에 힘을 쓸 것으로 생각한다.

[김*나]

6장 주제처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자본주의 때문에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것이 옛날 사람들은 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없다고 같은 언어를 말했다고 하는데, 책의 내용처럼 단 두 명이 6년 만에 자연을 되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많은 사람이 자연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

[강*민]

받아들일 수 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본주의 사회는 오래되지 않았다. 인간은 생명에 대한 위협이 오면 시대적 생각이 변화할 것 같다. 점점 사람들도 환경 단체를 만들며 활동하는 등 환경에 관한 생각이 많아지면서 변화할 수 있을 것 같다.

3) 이 책을 끝마치며 소감 말하기

[강*란]

->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면을 환경과 연관 지어 말해주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은 새 발의 피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하였다.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해왔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환경 및 지구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는 생각이 들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나]

-> 경영학과에 재학하면서 기업의 이득,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을 배웠는데 ESG 경영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도서를 골랐으나,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책에서 역사, 사회, 정치, 경제, 종교, 과학, 문화 등 모든 것이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혼자만의 이득이 아니라 모두 함께 덜 쓰고, 덜 성장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성장시키고 불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강*민]

-> 우리가 선택한 책이긴 했지만, 제목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에게 깔린 자본주의적 사상이었다, 자본주의의 시작부터 자세하게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공정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 착취, 약탈을 통해 만들어진 시대였던 것이 충격적이었다. 기본적인 바탕이 자연 파괴, 인권 침해 및 착취 등을 통해 진행되니 책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었다.

4) 6장 관련 주제 신문 기사 스크랩

[강*란]

-> [제목]

용인 호동 '길업습지' 생태계 복원 본격화

강재규 기자

[기사날짜]

2023.11.09.

[기사내용]

이 기사는 반딧불이 서식지로 알려진 용인특례시 호동 길업습지의 생태계 복원 작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용인시는 '길업습지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사업'이 경기도 2024 경기생태마당 조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으며 복원 작업을 내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한다고 한다.

'길업습지'를 도시화 이전 생태환경으로 되돌리는 사업이며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자연환경은 물론 습지 중요성, 생물 다양성 교육 장소로서의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나의 생각]

6장인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의 내용을 보면 "자연 자체의 권리를 '존재하며, 지속되고, 유지되며, 자신의 필수적인 순환을 재생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라는 구절이 있다. 인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인간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연의 권리를 침해하며 자연을 훼손시켜 왔다. 이에 따라 모두가 더불어 살아 가야 하는 자연 속의 많은 동식물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용인시는 훼손된 '길업습지'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반딧불이 서식지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 논의 해오고 있다. 이러한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들이 6장의 주제와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길업습지' 복원 사업 말고도 많은 생태계 복원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사업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환경 보전을 위한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URL]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11414

[김*나]

-> [제목]

EBS 자연 다큐멘터리 다큐프라임 '커넥션', 제작기간 2년.. 오는 11월 27일, 28일 방송

정현희 기자

[기사날짜]

2023.11.13

[기사 내용]

EBS에서 자연다큐멘터리 '커넥션'을 11월 27일에 방송한다는 기사이다. 커넥션은 대자연 속에서 생명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를 통해 어떻게 자연이 균형을 이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연 다큐멘터리이다. 2년 동안의 케냐, 멕시코, 팔라우공화국, 말레이시아, 일본 오키나와, 도미니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코스타리카, 한국 등 총 9개국의 다양한 생명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나의 생각]

6장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정하게 되었다. 6장에서는 자연과 사람, 동물 모든 것은 이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예시로 두 부부가 6년 만에 자연을 가꾸어서 황무지를 녹색으로 삼을 솟게 하고 동물이 돌아오게 만들며 멸종 위기 종들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 기사의 내용처럼 다큐멘터리에서는 동식물들이 연결된 모습과 강이 풍족해지고, 흙의 탄생을 볼 수 있고, 육지의 균류부터 바다의 플랑크톤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다. 자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책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면 알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다면 자연에 대한 이해와 모든 것이 연결된 이유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URL]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114>

[강*민]

->[제목]

‘도시’가 아닌, ‘도심’에 나무를 심어야

김형훈 기자

[기사날짜]

2023.9.22

[기사내용]

이 기사는 도시(city)가 아닌, ‘도심(downtown)’을 강조하며 도심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는 사람이 사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그렇지 않은 곳은 자연과 호흡하는 공간이 대다수이다. 반면 도심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며 자연과의 호흡이 없는 곳이다. 그렇기에 더욱이 도심에 나무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나무가 도심에 많아지면 미세먼지도 걸러주고 도심의 기온도 낮춰준다. 또한, 우리나라 연구진이 지난 2010년 국제 저널인 <종합환경과학 :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숲이나 공원, 정원 등의 녹지대를 바라본 것만으로도 뇌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대뇌변연계가 활성화되는 변화를 불러온다고 한다. 요즘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도심 숲에서 놀면, 고민하던 문제들이 사라진다. 숲을 만나면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인간은 나무 베기에 혈안이 돼 있다. 좀 더 편리를 추구한다며 곁에 있는 나무를 베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한다. 특히 좁은 도로를 더 넓게 만들고 싶은 욕망은 이웃한 자연을 친구로 삼으려 하지 않는다. 도로는 우리에게 ‘친화적인 삶의 도구’이며, 나무는 ‘불편한 친구’로 여기기 때문이다.

[나의 생각]

‘적을수록 풍요롭다’에 6장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 이웃들이다.”라고 말한다. 이때 우리는 나무와 인간을 말한다. 그만큼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다. 기사에서도 보면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인간들이 사는 공간인 ‘도심’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내가 인상 깊었던 내용은 숲이나 공원, 정원 등의 녹지대를 바라본 것만으로도 뇌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대뇌변연계가 활성화되는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우리도 모르게 자연을 보게 되면 편안해지고 침착해지는 이유가 이와 같다. 책에서는 나무와 우리가 DNA를 공유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그만큼 지구라는 공간에서 오랜 시간 살아온 만큼 떼어낼 수 없는 것 우리도 자연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연의 순환이 존재하듯 우리도 인간이기 이전부터 자연이 순환에 들어가 있는 자연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이 나무에, 숲에, 자원에 이끄리는 것 같다. 위 기사 내용처럼 이제는 나무를 불편한 친구가 아닌 나누는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URL]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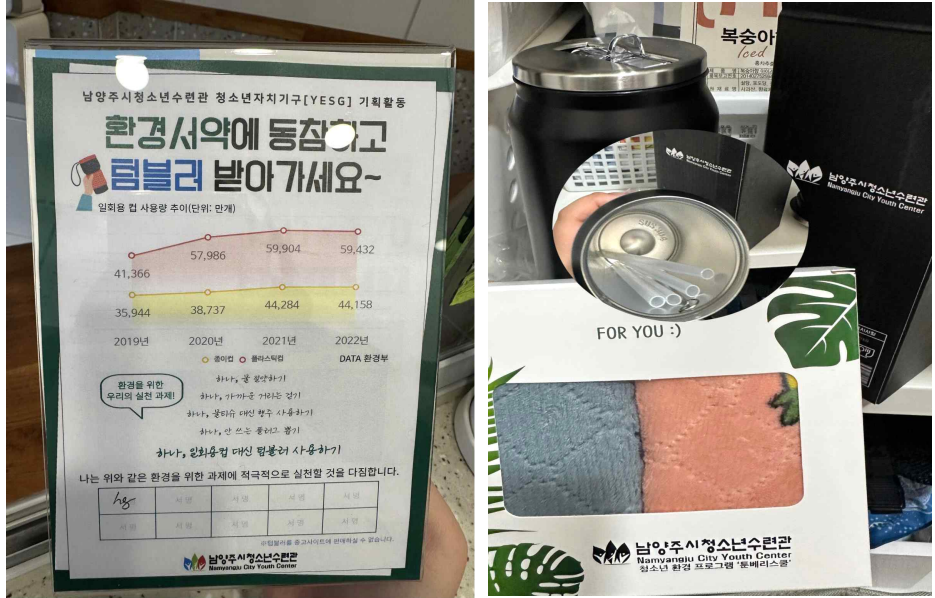
5) 이번 주 실천

[강*란]



-> 텀블러 사용 :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 포장하여 플라스틱 컵, 빨대, 컵홀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였다.

[김*나]



-> 환경서약 동참 및 텀블러 사용 : 환경서약에 동참하며 과제 중 하나인 텀블러를 사용하여 환경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강*민]



-> 분리수거 :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하여 자원 재활용 및 환경 보전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6) 이번 회기 북토크 활동 후 소감

[김*나]

-> 6장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를 읽고 작은 움직임으로도 큰 영향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두 부부가, 나무들이, 미생물들이 정말 모든 것들이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신기했다.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많은 사람이 서서히 환경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다면 빠르게 자연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다. 강*란가 말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재생 능력에 대한 놀라움과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 다시 한번 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강*민이가 말한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도 나도 모든 물체에 대해 차별하고 있었음을 깨달아 볼 수 있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당연하게 교육받고 자란 우리가 과연 애니미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다들 받아들일 수 있을 거란 얘기를 나누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삶의 위협을 느끼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들을 새롭게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관한 생각이 많아졌다. 6장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 보면서 책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자연의 위대함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태계를 복원한다든지 도시가 아닌 도심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기사들도 같이 알아갈 수 있어서 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실천으로는 환경서약에 동참하고 텀블러와 행주를 받아서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고 있다. 확실히 물티슈보다 행주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강*란]

-> 자연은 재생 능력이 매우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자연을 재생시킨 부부의 이야기도 소개되었다. 조금만 노력해도 이렇게 자연이 재생될 수 있는데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면서 산업 활동을 한 인간의 이기심을 느낄 수 있었다. 모두가 조금씩만이라도 노력하여 자연을 재생시키는 데 힘을 쓰면 좋을 것 같다.

신문을 스크랩하는 활동을 진행하여 많은 사람이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강*민]


-> 적을수록 풍요롭다 6장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드디어 이 책을 다 읽어냈다. 6장은 마지막 장인 만큼 사람과 자연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생각보다 더 오래 인간은 자연이었고 이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이를 분리한 관점도 인간이 만들어 낸 관점일 뿐 인간이란 더 작은 존재에 불가하다. 우리의 관점과 다르게 인간도 자연, 자연도 자연처럼 애니

	<p>미증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사례를 보면서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위해 애니미즘이 미개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책을 보며 알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부분에 연결된 환경이기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바로 알아야 할지 답답하고 그 결과 얼마나 많이 외면해왔는지 알게 되었다.</p> <p>책을 읽으면서 나무와 인간이 DNA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보고 놀라웠다. 우리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도심에 산 시간보다 자연 안에서 하나로 지낸 시간이 더 많았던 만큼 우리의 기술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세상이 많이 존재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p> <p>친구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들으면서 공감도 하고 새로운 견해라 들으면서 사고도 확장되는 시간이었다. 어려운 책이었음에도 책을 끝까지 다 읽어서 매우 기뻐했다. 어려웠지만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준 책이라 읽기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p> <p>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책과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다양한 기사들을 보면서 내용과 내가 인상적인 부분을 찾기에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내용을 정리하고 견해를 정리해 보면서 생각을 굳건히 하는 시간이었다.</p>
--	---

2023년 11 월 16 일

참가자대표 : 강*민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비즈니스 사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1 월 21일(화요일) / 장 소 : 알맹상점 서울역점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강*민	학번	2019****	이름	김*나
	학번	2019****	이름	강*란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7회기] 서기: 강*민 - 제로 웨이스트 상점 방문 실습</p> <p>1) 알맹상점 설명</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껌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 쓰레기를 줄이려 노력하는 가게 알맹상점입니다. 22년부터 리필도 가능합니다. (샴푸, 린스, 바디워시, 핸드워시 4종류) 위치 - 서울역 옥상정원에 위치한 리스테이션 (서울역 롯데마트 4층)</p> <p>2) 알맹상점 운영 프로그램</p> <p>1. 일회용 없는 (쓰레기 없는) 카페'를 운영 2022년 시행 예정인 컵 보증금제 시행 전 체험을 하는 공간입니다. 개인 텀블러 지참 시 모든 음료 1,000원 할인됩니다. 용기 없을 시 보증금 2,000원이 추가 결제됩니다.</p>							

컵 반납 시 2,000원 리펀됩니다.

2. 알맹 커뮤니티 회수센터 운영

재활용이 어려운 물품들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 1) 씻고 말린 우유 팩, 테트라팩 (화장지로 재활용)
 - 2) 말린 원두 가루(커피 화분, 커피 연필로 재활용)
 - 3) PPPE 재질 작은 플라스틱, 병뚜껑(플라스틱 치약 짜개로 재활용)
 - 4) 사용 후 브리타 필터(정수기)
 - 5) 실리콘 단일 재질 (데펜소 도시락통 패키지에 재활용)
 - 6) 세척한 재사용 유리병 (리필 스테이션에서 리필 용기로 재사용)
 - 7) 크래용 (리크래용)
- (회수 품목은 양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리필 매장을 늘리기 위한 노력 (식약처 샌드박스규제 시범운영)

단순 리필은 교육을 듣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 내는데 목소리를 내었고 2년 동안 진행되며(-2024년까지) 진행되며, 자격증 시험이 아닌 위생교육을 듣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사업 시행 중입니다.

워시류 4종류 (샴푸, 린스, 바디워시, 핸드워시) 리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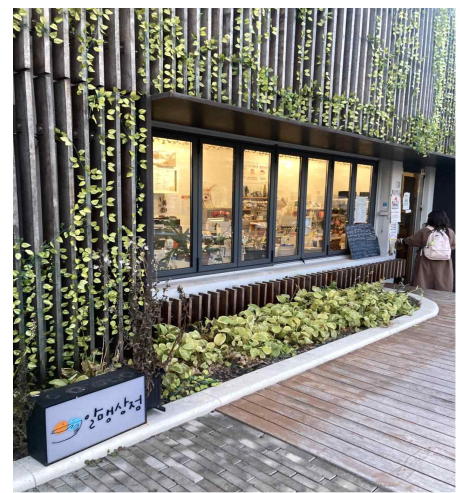
용기를 들고 오시면 리필이 가능합니다. (크림류, 스킨토너는 리필 불가, 망원점에 만 리필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깨끗해서 물기 없이 바짝 말려오신 용기

3) 알맹상점 실습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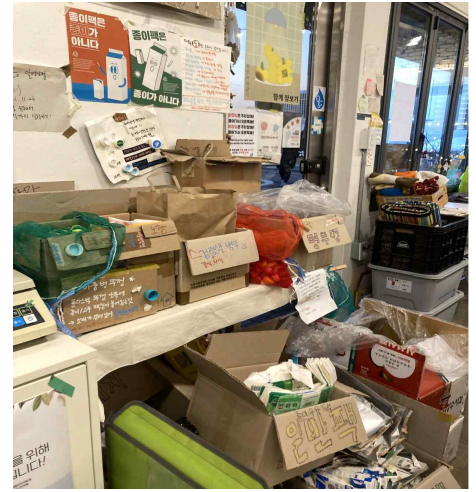
- 알맹상점 병뚜껑 모음탑에서 사진



- 알맹상점 외부 모습



- 입구 안내문



- 알맹 커뮤니티 회수센터



- 다양한 리필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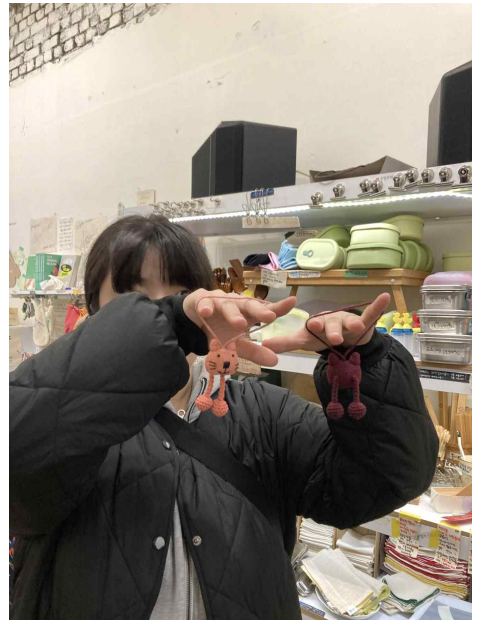




- 다양한 상품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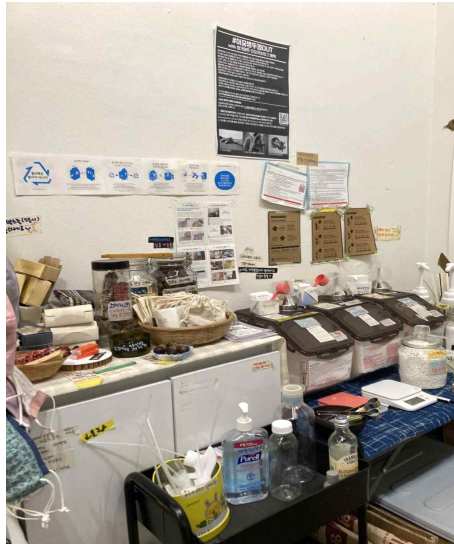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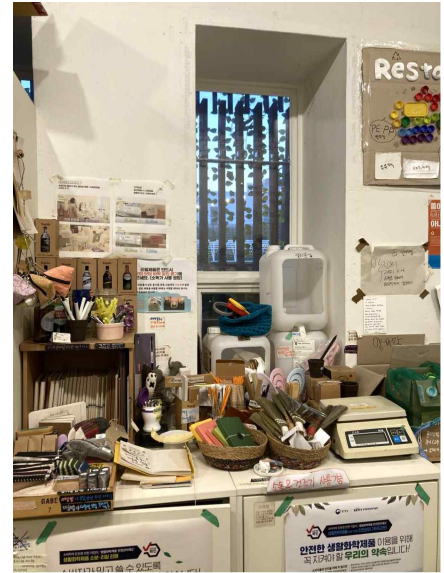


- 다회용품 및 친환경 제품 구매



다회용 화장솜, 대나무 칫솔, 샴푸비누

-다양한 상품 판매





- 일회용 없는 (쓰레기없는) 카페' 이
용



- 알맹카페에서 비건 아이스크림 먹음
(코코넛 밀크로 만들어서 고소하고 맛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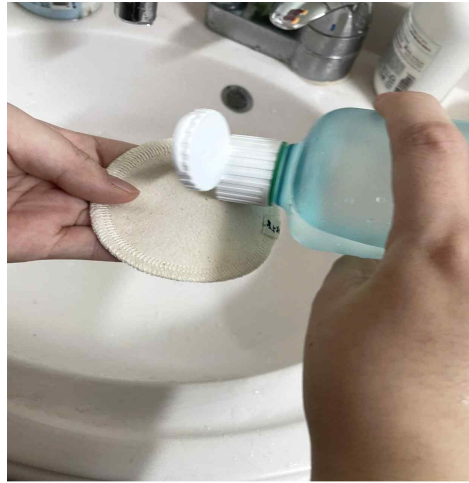
4) 제로 웨이스트 제품 사용 후기

[강*민]



-> 샴푸바 사용해 보니 생각보다 거품도 잘나고 좋았다! 비누는 거품이 잘 안 나서
뻑뻑하고 머릿결에 안 좋으리라 생각했는데 사용해 보니 거품도 엄청나게 잘나고 머
리가 개운한 기분이 들었다. 망에 넣어서 보관하니 보기에 예쁘고 거품도 더 잘 나
왔다. 오히려 편해서 지속해서 쓸 거 같다. 망에 넣어두면 내일이면 딱딱한 비누를
사용할 수 있었다.

[강*란]



-> 확실히 일회용 화장용 솜보다는 두꺼워 스킨 흡수가 느리게 되었다. 천은 까슬거리지 않아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세탁은 물세탁만 해도 괜찮을 듯하다. 오래되면 비누로 빨 예정)

5) 제로 웨이스트 상점, 알맹상점 방문 후기

[강*민]

-> 방문하기 전에는 아직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내가 이곳을 가도 흥미가 있을지, 과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편한지 알 수 없는 상태이었다. 생각보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는 알맹상점이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하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환경에 관하여 사람들이 관심이 생각보다 더 지대하구나! 알게 되었다. 나의 무지함에 대한 생각도 들었다.

알맹상점에 들어가니 이곳에 구호 '컵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처럼 바로 앞에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 그곳조차 플라스틱 통이 아닌 종이상자이었다. 다양한 재사용 가능 상품들이 있었다. 대나무 칫솔부터 고체 치약, 비누, 생리대,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만든 치약짜개, 재사용할 수 있는 지퍼백 등등 말이다. 그중에 신기했던 상품은 재사용할 수 있는 천으로 만들어진 화장용 솜이었다. 매번 화장하고 지우다 보면 적어도 2개씩 화장용 솜을 사용하게 된다. 집에서 사용하면서도 되게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것을 보고 바로 구매하게 되었다. 집에서 사용해 보니 생각보다 면이 부드럽고 착색도 거의 없어서 아직은 잘 사용하고 있다.

알맹상점 안에는 다양한 세안, 보습 제품들을 리필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공병을 가져와서 담아도 되고 매장에 디피되어있는 공병들로 담아갈 수도 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나중에 시도해보아야지 생각했다.

알맹상점 카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게 되면 2천 원을 더 내야 한다. 우리 둘 다 텀블러를 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장에서 먹었다. 검사하여 비건 아이스크림도 먹었다. 커피랑 아포가토를 해 먹었는데 생각보다 더 맛있었다. 은은하게 코코넛 향이 나는 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알맹상점은 새로운 관점을 나에게 알려주는 상점이었다. 당연하게 사용했다던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함으로써 실생활에서 환경을 아끼고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실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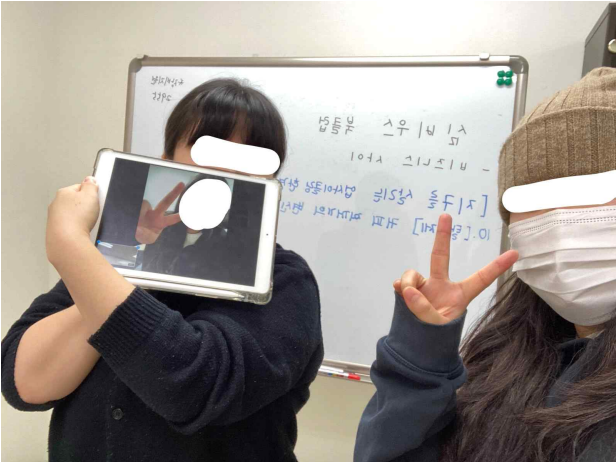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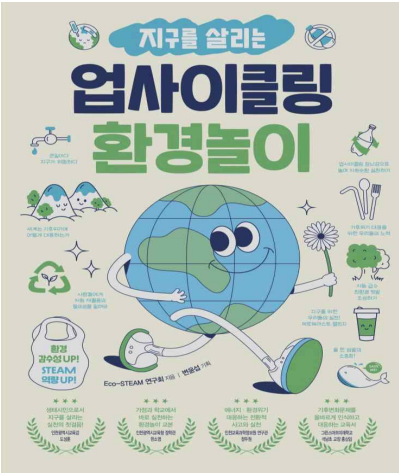
[강*란]

-> 서울역에 있어서 복잡한 구조이다 보니 약간 길을 헤매었다. 생각보다 좁은 가게였지만 많은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다. 물건을 구매하면 재활용 종이봉투나 병을 사용하여 포장해 갈 수 있어서 일회용 포장 비닐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구조이다. 직접 만드신 고양이 열쇠고리와 다회용 화장용 솜을 구매하였다. 일회용 솜만 쓰다가 다 쓰게 되어 구매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환경에 도움이 될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물건 구매 후에는 무료로 커피를 주셔서 비건 아이스크림 구매 후 같이 먹어보았다. 커피는 공정무역 커피였고 아이스크림은 우유를 사용하지 않고 코코넛 밀크를 사용한 아이스크림이었다. 비건 아이스크림은 처음 먹어보았는데 부담 없이 잘 먹을 수 있었다. 공병이나 우유갑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기부하러 오는 사람도 몇 있었다. 나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방문해서 구매뿐만 아니라 기부까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3년 11 월 21일

참가자대표 : 강*민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비즈니스 사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1 월 23일 (목요일) / 장 소 : 의사소통 실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강*민	학번	2019****	이름	김*나
	학번	2019****	이름	강*란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8회기] 서기: 강*민 책 : [지구를 살리는 업사이클링 환경놀이] part 2 지구를 살리는 업사이클링 환경놀이 10. [화분, 연필꽂이, 탈취제] 커피 찌꺼기의 변신 *북토크 사진 (허리 상태가 좋지 못하여 아쉽게도 줌으로 참여)</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제로웨이스트를 위해 책을 사기보다 밀리서재를 통해 책을 읽었다.</p>							

1) 커피 찌꺼기 학습지 작성 양식)

두레 2 학습지

학년 반 번 이름 ()

커피 찌꺼기, 아직도 그냥 버리십니까?

-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커피를 볼 수 있는 곳을 적어봅시다.
-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3가지 적어봅시다.
- 커피 찌꺼기로 만들고 싶은 작품을 미리 스케치해봅시다. (모양, 색깔, 문구, 용도 등)

142

환경 개선 UP 커피를 내려 마실 때마다 커피 찌꺼기가 생겨요

오늘 좀 피곤한데?

나도!

어릴 땐 커피가 필요하지.

난 커피 내리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야 커피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나와.

마음이 편해지는 커피 향, 나에게 다 방법이 있지.

커피 찌꺼기의 놀라운 변신

커피 원두에서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가루를 커피 찌꺼기라고 합니다. 커피 원두의 10%만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되고 나머지 90%는 커피 찌꺼기로 버려집니다. 쓰레기로 버려져 매립되고 소각되는 커피 찌꺼기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카페, 사무실, 음식점 등 많은 곳에서 커피가 소비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커피 찌꺼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포털(keep.go.kr)에서 알아보아요.

환경 위생상: 환경교육포털 우측상 세로, 2021.7.5.

Part 2 지구를 살리는 입시이용형 환경놀이 143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에 대해 더 알아봐요

커피 수입, 얼마나 했어? 국내 커피 시장 규모

커피 수입 (억 달러)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입액	94.5234	98.3726	101.9834	79.2790

국내 커피 시장 규모 (억 원)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장규모	1821.9339	1221.4385	1487.7853	1779.4948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정책 기획처, 한국커피협회 (2019년 기준)

1인당 커피 소비량

연도	2015	2016	2017	2018
한국	291	317	336	353
세계	130	131	131	132

* 1인당 커피 소비량 = 커피 원두 소비량(30kg 이상 인구 기준) / 10kg을 커피 한 잔으로 계산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연구보고서, 커피산업의 당면 과제와 정책 방향

144

활리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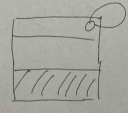
- 1 재료 준비하기(커피 찌꺼기, 커피 필터, 끈, 구멍 뚫는 펀치)
- 2 커피 찌꺼기 말리기(팬에 쪄거나 자연 건조하기)
- 3 커피 필터 접기
- 4 커피 필터를 펼쳐서 커피 찌꺼기 담기
- 5 커피 필터를 다시 접어서 펀치로 구멍 뚫기
- 6 뚫은 구멍에 끈 넣어 묶으면 완성! 풀기

145

[강*민]

커피 찌꺼기, 아직도 그냥 버리십니까?

-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커피를 볼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커피숍, 집, 사무실, 편의점, 카페, 학교, 회사, 도서관, 박물관, 호텔, 레스토랑, 카페, 기타, 주사위, 여행사.
-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3가지 적어주세요.
신문지, 리필용, 가연성, 퇴.
- 커피 찌꺼기로 만들고 싶은 작품을 미리 스케치해봅시다.
(모양, 색깔, 문구, 용도 등)
커피 찌꺼기, 만화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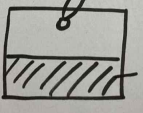


152

[강*란]

커피 찌꺼기, 아직도 그냥 버리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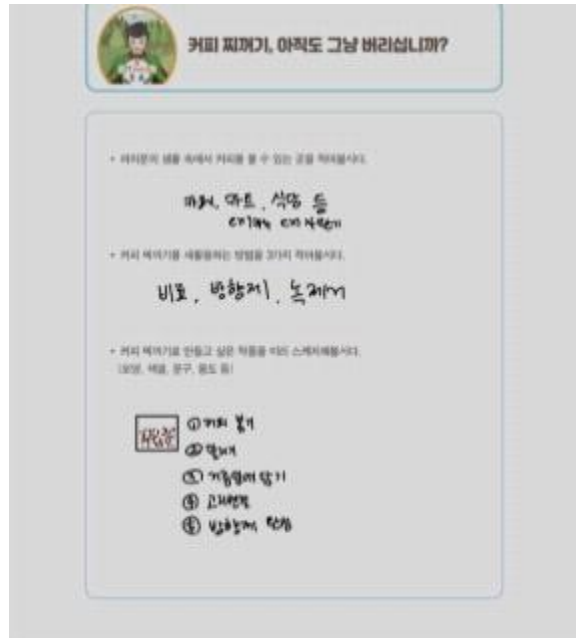
-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커피를 볼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집, 카페 등 일상생활 속에서 커피를 많이 볼 수 있는 곳.
-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3가지 적어주세요.
신문지, 재활용, 퇴.
- 커피 찌꺼기로 만들고 싶은 작품을 미리 스케치해봅시다.
(모양, 색깔, 문구, 용도 등)



커피 찌꺼기

152

[김*나]



2) 커피 찌꺼기 탈취제 만들기 (준비 과정)



- 촉촉한 커피 찌꺼기를 볶거나, 햇빛을 통해 말려주세요.



- 준비물 : 커피 찌꺼기, 다시마 팩, 가위, 스테인플러, 실, 펀치

탈취제 만들기)



- 다시마 팩에 커피 찌꺼기를 넣고 접는다.
- 새로운 다시마 팩에 이중으로 넣고 끝을 스테인플러로 짝는다.
- 위에 여분 공간에 펀치로 뚫고 실을 엮는다.



-> 완성!!

3) 커피 찌꺼기 화분, 연필꽂이 알맹상점에서 본 것들 공유



-> 우리가 이번 회기에 만들진 않았지만, 책에서 나온 커피 찌꺼기 화분과 연필을 알맹상점에서 봄.

[강*민]

-> 지구를 살리는 업사이클링 환경놀이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업사이클링 방법을 배웠다.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 커피 찌꺼기 관련된 챕터이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실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것은 커피 찌꺼기 화분이었다. 시간상 장소 상 커피 찌꺼기 화분을 만들지 못했지만 알맹상점 실습에서 구경해 볼 수 있었다. 뭔가 아는 것을 만나서 기분이 들뜨고 반갑기까지 했다. 커피 찌꺼기의 변화가 어디까지일까 궁금했다. 우려했던 점이 커피 찌꺼기는 가루이기 때문에 과연 단단할까이었다. 근데 생각보다 단단하고 향기도 나서 좋았다.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다.

[강*란]

-> 커피 찌꺼기는 방향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화분이나 연필꽂이 같은 딱딱한 물건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을 알맹상점에서 처음 보고 알게 되었다. 친언니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 다음에 찌꺼기를 받아와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김*나]

-> 알맹상점에서는 <착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NH농협카드를 이용하면 10% 할인을 진행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NH농협카드를 쓰는 처지로서 소비하더라도 착한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주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SNS에서 다회용 지퍼백을 활용하는 릴스를 보면서 지퍼백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했는데 알맹상점 같은 제로웨이스트샵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커피 찌꺼기로 만든 화분도 어떻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신기했고 연필꽂이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세제나 섬유유연제 같은 생필품은 용기를 가져가서 사 올 수 있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 같았고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귀여운 열쇠고리들도 많았고 실생활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상품들도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어서 구경하러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4) 이번 주 실천

[강*민]



-> 당근마켓을 통해 반려구피 어항을 구매하였다. 새것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사용하던 것을 구매하여 쓰레기 소비를 줄이고 돈을 절약하였다.

[김*나]



-> 커피 캐리어를 사용하여 핸드폰 충전기 선 정리함으로 사용함.

[강*란]



-> 다회용 스테인 용기로 음식을 포장하여 일회용 포장 용기 사용을 줄였다.

5) 북토크 후 소감

[강*민]

-> 이번 북토크에서는 체험을 같이 섞어서 해보았다. 준비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더 활동적이고 재미있었던 것 같다.

집 주위 카페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커피찌꺼기를 가지고 탈취제를 만들었다. 커피 찌꺼기를 가져와 물기를 날리기 위해 볶는 과정에서도 향긋한 커피 향이 기분을 좋게 했다. 준비물을 챙겨서 친구들과 만드는데 별거 아닌데도 웃음꽃이 피었다. 다시마 팩에 반절 채워 두 번 담아서 스테인플러로 닫고 펀치로 구멍을 뚫어 실을 넣어 묶으면 완성되었다. 만들기도 간편하고 생각보다 더 향기도 많이 나서 좋았던 것 같다. 만드는 내내 향긋한 향기가 나고 결과물도 예뻐서 기분이 좋았다. 마지막에는 영어로는 'between businss', 한국어로는 '비즈니스 사이'를 적어 넣으니 더 의미 있었다.

내 손으로 환경을 위해 노력한 거 같아서 환경보호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간 것 같다.

[강*란]

->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해보았다. 예전에 엄마 덕분에 커피 찌꺼기가 방향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책을 읽으며 커피 찌꺼기가 방향제뿐만 아니라 화분, 연필꽂이 등 더욱 많은 곳에 재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다. 커피 찌꺼기를 시작으로 또 다른 제로웨이스트 실천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나]

-> 지구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읽어보고 업사이클링 환경놀이를 통해서 지구를 살리는 방법을 직접 시도해 보았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후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아직도 배출하고 있다. 책에서는 2050 기후 위기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고 예측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심각성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지구는 비가역성이 되게 된다. 즉, 다시 원 상태로 회복되지 못한다. 지구가 이렇게 아프게 되면 사람에게도 피해가 간다. 감염병이나 미세 플라스틱 등 결국 우리 손으로 스스로를 ,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 지구를 위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속 가능한 환경융합 수업들이 아이들에게 학습되면 자연스럽게 지구를 아껴야 하는 마음과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커피 찌꺼기가 일반쓰레기로 배출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커피 점토, 화분, 연필 꽃이, 탈취제 등으로 다양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23년 11 월 23일

참가자대표 : 강*민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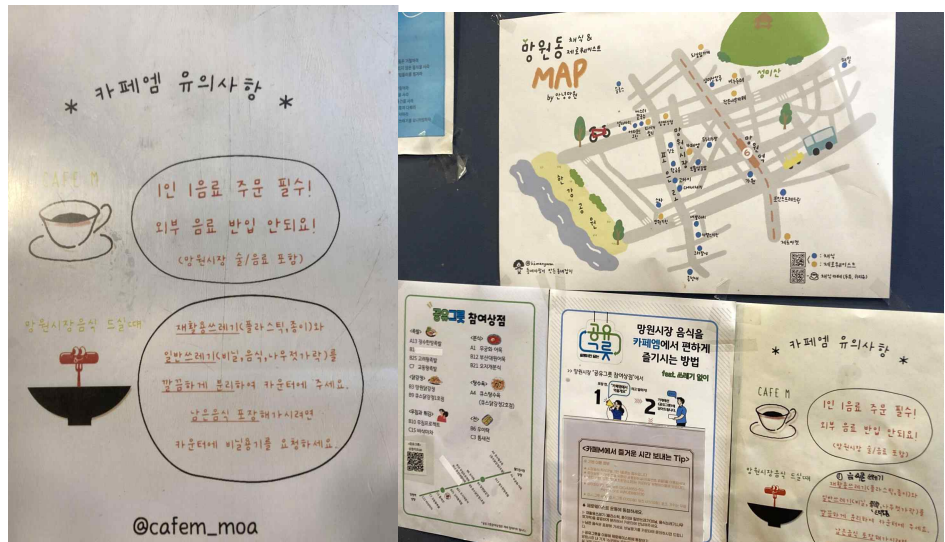
북클럽 팀명	비즈니스 사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1 월 27일 (월요일) / 장 소 : 망원시장과 망원한강공원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강*민	학번	2019*****	이름	김*나
	학번	2019*****	이름	강*란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9회기] 서기: 김*나 [망원시장 공유그릇 체험과 망원한강공원 플로깅]</p>  <p>1. 망원시장 공유 그릇이란?</p> <p>1) 망원시장 공유 그릇 소개</p> 							

- 망원시장 입구, 내부 상점들

망원시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공유 그릇을 대여해 주고 소비자
들이 포장해서 먹을 수 있게 운영하는 사업이다. 시장 안에서 공유 그릇을
동참하는 가게에 가서 직접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고 공유 그릇에 담아 달
라고 말씀드리면 가게에 준비된 공유 그릇에 음식을 담아 주신다. 공유 그
릇 지도 혹은 가게에 공유 그릇 표시가 있는지 잘 확인하면 된다. 용기를
가져와 장을 보면 쓰레기봉투를 주는데 쿠폰 10장을 모아 상인회 사무실에
가서 교환할 수 있다.



- 공유 그릇 팻말, 카페 'M'



- 카페 'M' 유의 사항, 망원동 맵, 공유 그릇 안내 사항 포스터 등

-> 사진처럼 팻말이 세워져 있거나 벽에 공유 그릇 포스터가 붙어있다. 구
매 후 카페 'M'으로 가면 공유 그릇에 포장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공

간이 있다. 1인 1 음료를 시킨 후 테이블을 이용하면 된다. 음식들을 먹고 공유 그릇을 카페에 반납하면 된다. 카페 내부에는 제로웨이스트 관련 자료들과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비건 음식점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책들도 많아서 식사한 후에 독서할 수 있다. 내부에 테이블도 넉넉하고 직원분들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셔서 편하게 먹을 수 있었다.



- 직접 공유 그릇에 구매한 음식들

-> 우리가 구매한 음식들은 떡볶이, 고추튀김, 닭강정이었고 공유 그릇에 담아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원래 양보다 더 많이 담아 주셨다. 덕분에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고 공유 그릇을 사용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 먹은 후 카운터에 반납하고 쓰레기 없이 식사를 마칠 수 있었다.

2) 망원시장 공유 그릇을 체험한 소감

[김*나]

시장에서 제로웨이스트가 가능할 거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공유 그릇’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주문할 때 공유 그릇에 담아 달라고 말씀드리면 자연스럽게 매장에 준비된 공유 그릇에 음식을 담아 주신다. 다들

공유 그릇에 담아 달라고 요청했을 때 넉넉하게 담아 주신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시장의 정을 느낄 수 있었고 사장님들이 다들 친절하셨다. 여러 상점을 돌아다니며 시장 구경도 하고 '카페엠'으로 가면 음료를 시켜서 같이 먹을 수 있다. 1인 1 음료와 공유 그릇에 담은 음식들을 따뜻하고 맛있게 먹었다. (닭강정, 떡볶이, 고추튀김) 떡볶이가 뜨거워서 비닐에 담아 주려고 하셨는데 강*란이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왔다. 이젠 어떻게든 쓰레기를 줄이려는 모습들이 자연스레 나타나고 있다. 직접 용기를 가지고 멀리 나가서 들고 다니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을 때 공유 그릇이 있으면 좋을 거 같았다. 앞으로 각 지역 시장에서 공유 그릇을 운영하면 쓰레기 배출도 줄이고 상권끼리 상호 작용하며 성장하는 순환 경제를 구축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하면서도 일회용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줄였다는 생각에 너무 뿌듯하고 친구들과 같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아주 값진 추억을 얻었다.

[강*란]

북토크 활동 중 용기내 챌린지를 하면서 음식을 다회용기에 포장해 집으로 가져와 먹은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시장에 가서 여러 음식을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그릇'에 담아 가져가서 먹는 경험은 처음 해보았다. 지정된 카페인 '카페엠'에 가져가서 먹어야 하며, 다 먹은 후에 카운터에 가져다드리면 카페 직원께서 정리한 후에 직접 포장해 왔던 가게에 다시 공유 그릇을 반납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는 음식을 포장해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매우 편리했다. 총 3곳의 음식점에서 음식 포장을 했으며 지도를 보니 생각보다 많은 점포에서 공유 그릇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일회용 포장 용기 사용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좋았다. 망원시장처럼 다른 시장들도 공유 그릇 서비스를 도입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민]

북토크 실천으로 친구들이 용기내 챌린지를 하는 것을 보긴 했지만 나는 해보지 못해서 내내 궁금했다. 이번 기회에 시장에서도 공유 그릇을 통해 용기내 챌린지를 할 수 있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처음 사장님께 가서 공유 그릇으로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민망한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사장님이 되려 반가워하시면서 서비스도 주시고 이거 참여하시는 분들 많다고 여러 가지 사서 카페 가서 야무지게 먹으라고 해주셨다. 시장에서 공유 그릇을 통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니 감회가 색달랐다. 다양한 상점에서 공유 그릇을 실천해 나가고 있어서 시장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상인들은 일회용품에 사용되는 금액을 줄이고 카페의 경우 매출을 올림으로써 시장 모든 이들에게 이득을 주는 좋은 캠페인인 것 같다. 카페엠이라는 것에서 취식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말고도 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이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망원동은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샵과 비건 음식점들이 있는 만큼 위와 같은 환경 캠페인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사장님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환경 캠페인에 열린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고 계신다. 공유 그릇뿐만 아니라 집에서 용기를 가져와서 포장해 가면 용기내 챌린지 쿠폰을 주는 데이를 통해 쓰레기봉투를 주는 캠페인도 하고 있다. 망원동 말고도 다양한 곳에서 지구를 지키는 환경 캠페인이 실시되면 더 좋겠다.

2. 망원한강공원 플로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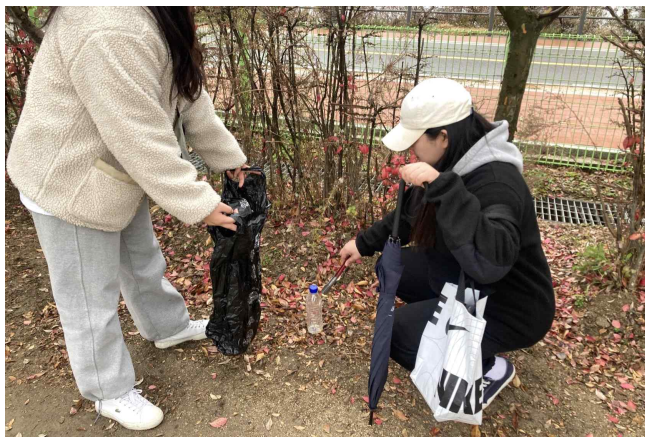
1) 망원한강공원



- 위치 :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467 한강공원망원지구사무소



- 망원한강공원으로 플로깅 하러 각자 준비한 봉투와 집게 등을 들고 가는 길



- 플로깅 활동사진



-분리수거를 하여 쓰레기를 줍는 모습들



-안 보이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쓰레기봉투에 제대로 담아 버리지 않고 쌓인 쓰레기들, 주차장에 아무렇게 막 버려진 쓰레기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 플로깅하며 주운 쓰레기들



-주운 쓰레기들을 분리수거 후 플로깅 종료

2) 망원한강공원 플로깅 소감

[김*나]

시장에서 배부르게 먹고 망원 한강 공원으로 플로깅을 하러 갔다. 입구에서 각자 준비한 봉투와 집게로 공원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주웠다. 봉투마다 분리수거를 구분해서 쓰레기를 담고 다녔다. 눈에 보이는 곳들은 대부분 깨끗했지만 잘 안 보이는 풀숲이나 구석진 곳에 쓰레기들이

상당했다.

그리고 주차장에도 은근히 쓰레기를 막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충격적이었다. 안 보이는 곳에 오래된 쓰레기들을 정리하며 어떻게 이런 곳에 버렸을까 하는 생각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군데 있음에도 아무렇게 버려진 쓰레기를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우리가 플로깅하며 주운 쓰레기들은 공원 분리수거 하는 곳에서 잘 버리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하루 동안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해 보았는데 우리가 충분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집에서 봉투를 가져와 버려진 쓰레기를 담아서 제대로 배출될 수 있게 잘 버릴 수 있었다.

책을 통해 알게 된 지식과 경험을 행동으로 옮겨서 더욱 큰 경험과 추억을 얻을 수 있었다. 혼자서는 어려웠겠지만 같이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 자신감을 가지면서 활동할 수 있었다.

[강*란]

한강 공원에 쓰레기통이 적지 않게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에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 심지어 쓰레기통이 가까이에 있는 곳이어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주차장, 화장실 앞 등 많은 곳에 버려져 있었다. 심지어는 사람의 손길이 닿기 힘든 풀숲 사이에도 버려지는 경우도 종종 보았다. 쓰레기를 담아갈 비닐봉지가 생각보다 큰 크기였기 때문에 봉투를 채우기엔 오래 걸릴 거로 생각했는데 금방 채웠던 것 같다. 담배꽂초부터 일회용 컵, 장갑, 심지어 크기가 엄청나게 큰 플라스틱 생수통 같은 것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를 주울 수 있었다.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으며,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어 잘 버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니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강*민]

공유 그릇을 체험하고 소화할 겸 우리는 망원한강공원에서 플로깅을 진행했다. 15분 걸어서 도착한 한강 공원은 생각보다 더 깨끗해서 과연 우리가 쓰레기를 주울 게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 구석구석에서 많은 쓰레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관리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큰길에는 쓰레기가 많지 않았지만, 수풀이나 강 주위에는 숨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찾을 수 있었다. 생각보다 더 큰 플라스틱 쓰레기부터 작게는 담배꽂초까지 있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깨끗한 한강 공원이 아니었다. 시작하지 30분도 안 돼서 많은 쓰레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조금은 충격받았던

거 같다.


쓰레기를 분류해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을 분리해서 플로깅을 진행했는데 끝날 때쯤 큰 봉지에 반절씩 채웠다.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리고 한강 공원을 나오는데 계속 쓰레기들이 눈에 들어왔다.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막 버려놓은 쓰레기들, 전봇대 아래 모여있는 쓰레기 등 정말 많은 쓰레기가 버려진다. 한번 눈에 들어오니 쓰레기들이 정말 많았다. 우리가 정말 작은 쓰레기들을 버릴 때 '뭐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작은 쓰레기들이 모여 많은 쓰레기를 발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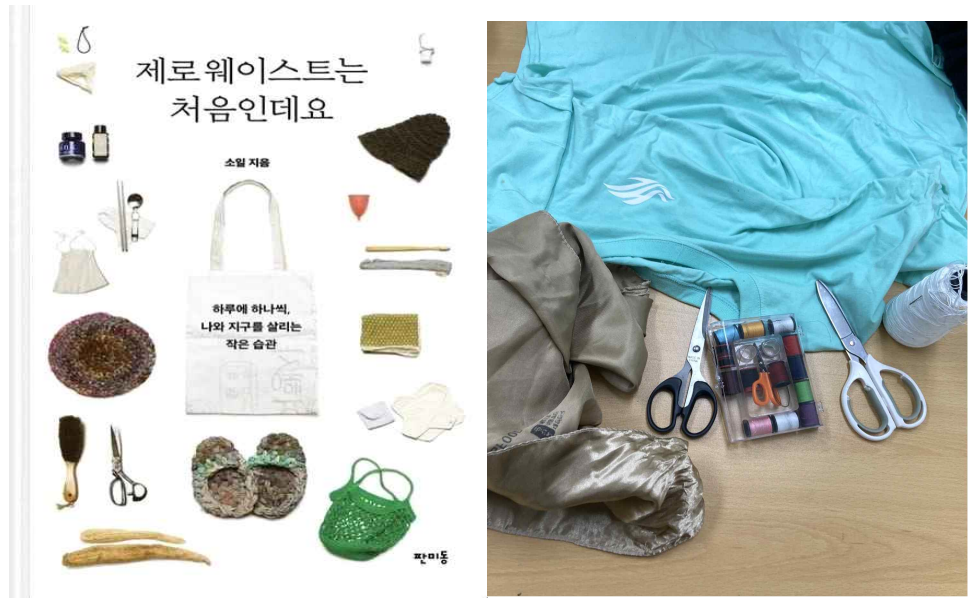
플로깅을 통해 더욱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제대로 분류하러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2023년 11 월 27일

참가자대표 : 강*민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비즈니스 사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1 월 30일 (목요일) / 장 소 : 일송도서관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강*민	학번	2019****	이름	김*나
	학번	2019****	이름	강*란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10회기] 서기: 김*나 [제로웨이스트는 처음인데요] part 1 제로웨이스트는 처음인데요</p> <p>*북토크 사진</p> 							



-> 제로웨이스트를 위해 책을 사기보다 밀리서재를 통해 책을 읽었다.

1) 파트 1을 읽고 인상 깊은 점 말해보자

[강*민]

p8 “환경 문제는 너무나도 거대해서 어떻게 손쓴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고 포기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다가 중국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 미세먼지로 부영던 중국 하늘이 APEC 회의 기간 동안 푸른 하늘로 바뀌는 것을 본 것이다. 그것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익히 경험한 사실이다. 회색 하늘을 파란 하늘로 만드는 것을 보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힘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다, 노력하는 만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 북클럽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환경문제는 전 세계인의 팀플이다.”라고 생각했다. 위 첫 문장처럼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다양한 책들을 책이야기마당으로 읽어보면 자연일 것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아 우리가 예견한 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하나의 변화가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인간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을수록 풍요롭다.’라는 것에 서도 ‘지구를 살리는 리사이클링 환경놀이’에서도 ‘제로웨이스트는 처음인데요’에서도 일관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다.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고 우리가 시도하면 환경문제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북클럽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희망을 얻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나의 생각을 대면하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다.

p14 “물건을 보고 소비 욕구를 키우는 게 아니라, 물건의 기능부터 생각하면 무분별한 쇼핑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필요에 적합한 제품만을 찾아 쓰는 사람이 된다. 그러다 보면 점점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변모하기도 한다. 내가 원하는 물건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 이 문장처럼 우리는 다양한 자본주의의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적을수록 풍요롭다’에서 충분히 익힌 내용이다. 성장하기 위해서 더 많이 구매하도록 광고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를 소비로 이끈다. 왜냐하면 광고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처음 광고를 만든이가 심리학자일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구매 전 물건의 기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건에 현혹되지 말고 필요한 것인지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더 많은 소비를 줄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김*나]

p17, “내가 아끼는 텀블러를 애용하는 일이 결국 일회용품 컵을 사양하는 이유가 된다. 물건을 보고 소비 욕구를 키우는 게 아니라, 물건의 기능부터 생각하면 무분별한 쇼핑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 생일선물로 받은 텀블러를 한 해 동안 사용하면서 정말 일회용품을 스스로도 많이 즐겼다고 생각한다. 언제 어디서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들어서 플라스틱 컵이나 빨대, 홀더 등을 쓰는 일이 거의 드물고 버리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 평소에도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최대한 고민해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편인데 앞으로도 물건의 기능부터 생각하고 구입하고 충동구매를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P19, “그런데도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으니 굳이 완벽함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고 늘 되뇌는다. 원칙을 세워 두되, 그 원칙

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하자는 사고 방식을 가진 나에게 저자처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완벽함을 위해 애쓰던 내 모습이 떠올랐고 사실 완벽할 수 없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노력하려 애쓰는 나를 잠깐 숨 쉬게 해준 문장이다. 원칙을 세우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얽매이지 않는 태도를 배우고 싶어졌다.

[강*란]

“쓰레기는 어느 곳에나 있다.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없애는 노력도 어디서나 가능하다. 불필요한 일회용품을 하나 덜 쓰는 것처럼, 내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보자. 재밌고 행복한 만큼만 실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환경을 보전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문장을 추천해 주고 싶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사소한 행동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결국엔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가치 있는 행동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나 또한 예전에는 ‘내가 노력한다고 크게 달라질까?’라는 생각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실천하며 환경을 지키는 사례들을 보고 ‘조금씩이라도 해보자!’라 생각을 바꾸고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실천하는 중이다.

“쓸모없는 물건들은 아무리 사연과 추억을 많이 담고 있어도 사실상 쓰레기가 된다.”

-> 내 방의 서랍 및 책장 안에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남겨져 있는 많은 물건이 떠올랐다. 사실 많이 봐봤자 1년에 한 번 사용하거나 볼까 말지 한 물건들이지만 옛날의 추억을 회상시킨다는 이유만으로 버리거나 재사용하지도 않은 채 남겨져 있다. 아까워하지 말고 쓸모없는 물건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2) 전 파트 중 인상 깊었던 점을 적어보자. (1장 제외)

[강*민]

p170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분명히 변화는 찾아온다. 세계를 바꾸기 힘들지만 나는 바꿀 수 있다.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 Part 6 완전한 제로 웨이스트는 없다는 것에 서는 부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관점을 버리고 미래를 긍정적이고 점진적인 제로웨이스트에 대해 이야기한다. 혼자가 아니라 다수와 함께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면서 우리가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관점의 변화를 주고자 노력한다. 위 문장도 환경문제를 세계로 보지 말고 나를 중심으로 두어 한 개인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가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큰 문제부터 생각하게 되면 덜컥 겁을 먹거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작은 그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실천하기 쉬워진다. 그런 점을 다시 일깨워 주는 문장이라 선택하게 되었다. 하나뿐인 지구를 함께 긍정적이고 지속해서 하나하나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나]

Part 6, 완전한 제로 웨이스트는 없다.

쓰레기 줍기 운동은 쓰레기를 줍고 인증사진을 찍는다. 쓰레기를 줍고 버리는 시간은 1분도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다. 우리 집 주변, 동네 산책길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니 작은 효과라도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점이 있다. 인스타그램에 #같이 쓰레기 줍기를 태그하여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하고 싶은 만큼 쓰레기를 줍고 인증사진을 찍어 올리면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세계는 못 바뀌도 나는 바꿀 수 있다는 문구가 인상 깊었다. 나도 동의하는 태도다. 혼자서는 세계를 바꿀 수 없어도 스스로는 바꿀 수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하기, 비닐봉지 대신 종이상자나 장바구니 이용하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쓰지 않기 등 플라스틱 사용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것만이 해양 동물들을 우리를 심각한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직접 실행해 보니 부담스럽지 않고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느꼈다.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변화는 찾아오고 세계를 바꾸기 힘들지만, 나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쓰레기를 제로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소소하고 작은 실천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말로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란 정말 쉽지 않다. 나의 꾸준한 실천들이 친구, 지인, 가족들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빠른 방법이란 말에 공감한다. 앞으로 나의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들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강*란]

part 2 제로 웨이스트하며 살기 - 위생용품 편(월경 관련)

여자들이면 무조건 겪어야 하는 월경과 관련한 위생용품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초경부터 완경까지 한 사람당 평생 버리는 생리대는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만 개가 된다고 한다. 평상시에 월경하면서 당연하게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생리대가 사용되는지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버리는 쓰레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다. 저자는 일회용 생리대의 대안을 찾아보던 중 월경컵의 존재를 알게 되어 구매 후 사용법 및 후기(장점)를 알려준다. 나도 저자처럼 월경컵 사용에 대해 미리 겁을 먹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편안함은 물론 일회용 생리대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나의 몸을 아낄 수 있게 한다니(일회용 생리대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이 가려움증, 생리통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한다) 한 번 월경컵 사용에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part 2 제로 웨이스트하며 살기

3) 만능 보자기 실습 - 가방 대신 보자기 책 내용)

사용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
로프, 복대, 앞치마, 두건, 스카프
까지 그 쓰임은 손수건 이상이다.

가방 대신 보자기

짐이 많지 않은 날에는 보자기로 가방을 대신할 수 있다. 클러치 처럼 들 수도 있고, 작은 물건만 들었을 때는 지갑처럼 작게 접을 수도 있다.

[강*민]

-> 기본 보자기 가방





-> 꼬임 보자기 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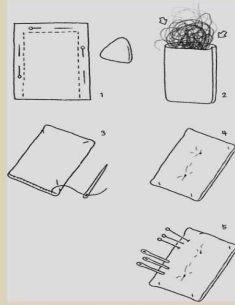
: 설날이나 추석에 한과나 한우를 감싸는 보자기를 사용했다.

처음에 책에 나온 것을 보고 잘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만들어 보니 생각보다 쉽고 예뻐서 당황했다. 가끔 러쉬를 가게 되면 선물 포장할 때 보자기로 하는 걸 본 적은 있지만 스스로 해볼 생각은 없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그게 생각나 시도해 보았다. 다양한 디자인을 보자기 하나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신기했다. 돈을 드리지 않고 다양한 디자인에 가방을 얻은 것 같아서 가방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크게 다가왔다. 책에서 책보로 사용하기도 하고 해서 다음에는 책보도 도전해 봐야겠다.

단점이라면 천이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것을 넣으면 처지는 감이 있기에 안에 더스트 백을 넣으면 더 사용하기 좋을 것 같다. 그래도 잘 쓸 거 같아서 기대 중이다.

part 5 제로 웨이스트하며 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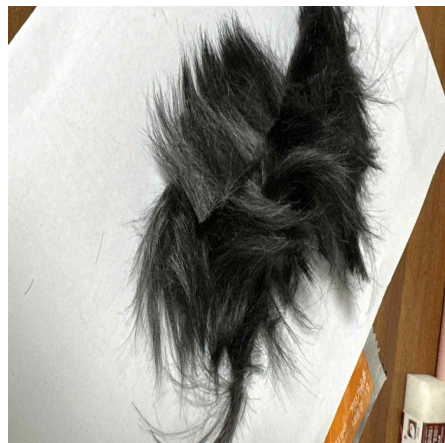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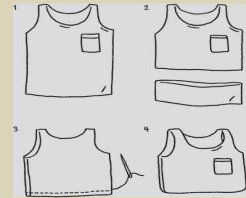
4) 천으로 작은 가방 만들기 혹은, 머리카락이나 동물 털을 넣은 바늘방석 만들기 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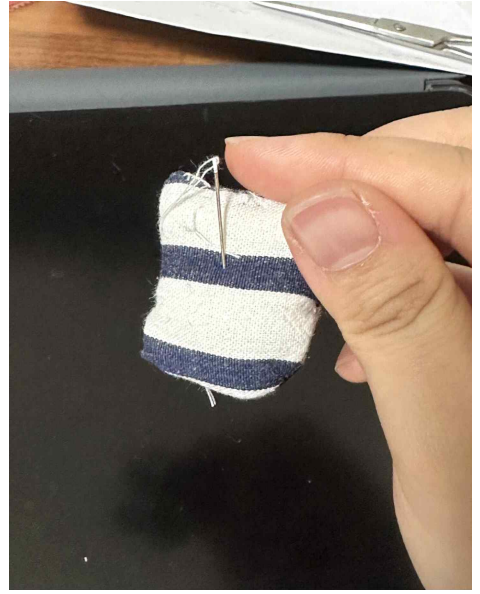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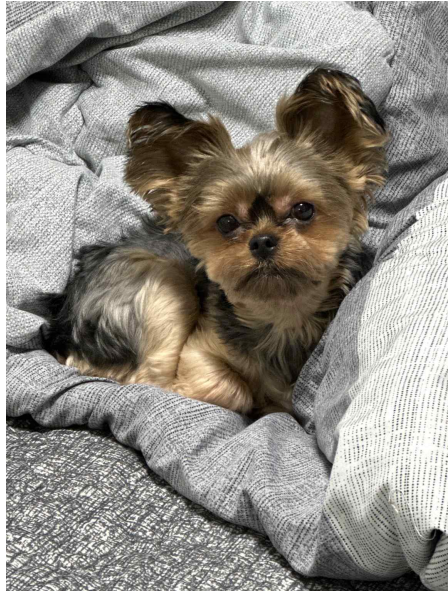


머리카락(동물 털) 바늘방석 만들기

1. 버리려고 챙겨 둔 조각 천을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안 입는 티셔츠, 민소매 티로 장 볼 때 사용하는 주머니를 만드는 영상을 보고, 나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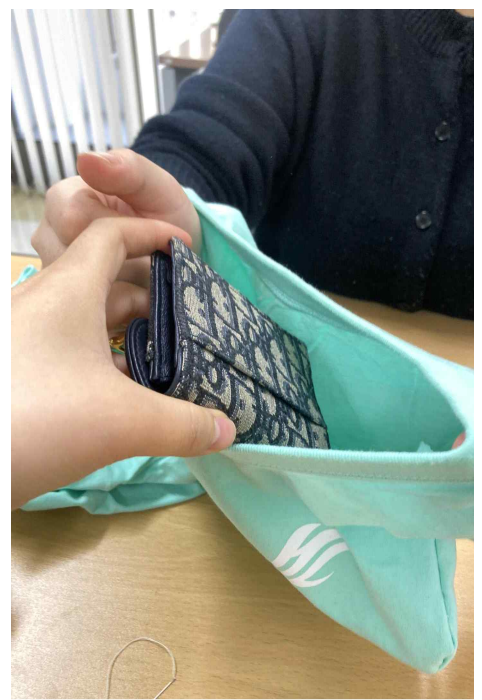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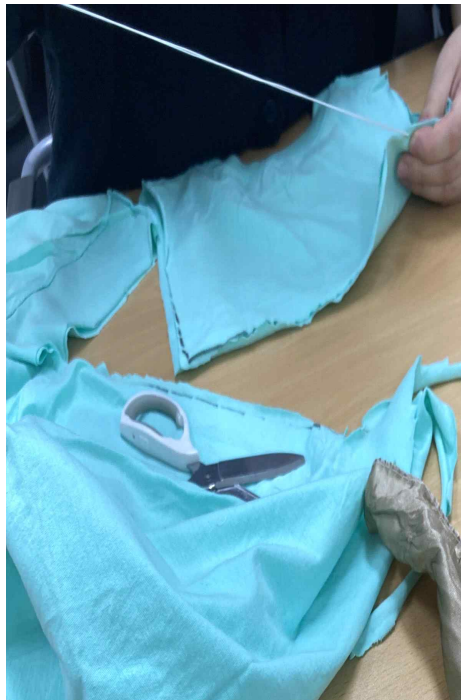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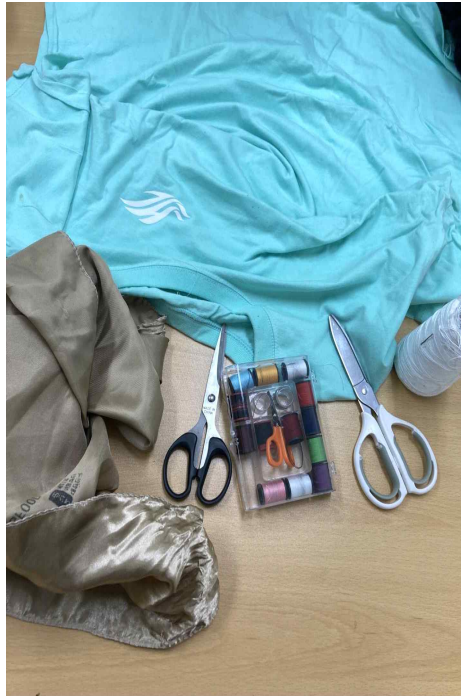
[김*나]

-> 머리카락이나 동물 털을 넣은 바늘방석 만들기

제로 웨이스트로 동물의 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신기하였다. 안 입는 셔츠 소매를 활용하여 털을 넣어 바느질하고 바늘을 정리해 주면 완성이다. 작고 귀여운 바늘방석을 만들어 보았는데 생각보다 털이 많이 들어가고 아담하게 만들어졌다. 집에서 종종 미용하는 편인데 털은 항상 일반쓰레기로 담겨 버려졌다. 작은 개를 키우는데도 미용하면 털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바늘방석을 만들어 보면서 나중에는 강아지 장난감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남한테는 쓰레기로 보일 수 있어도 내가 제대로 된 가치를 발견해서 쓰면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장난감으로도 아니면 장식품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강*란]

-> 천으로 작은 가방 만들기



: 버리기엔 아깝고 입기엔 애매해서 서랍에서 꺼내고 있지 않았던 티셔츠를 사용해서 조그만 가방을 만들어 보았다. 목 부분은 남겨놓고 팔 부분을 잘라 민소매처럼 만든 뒤 팔을 넣을 수 있는 공간만 남기고 바느질하면 된

다. 이 기회를 통해 서툰 솜씨였지만 직접 바느질해서 가방을 만들고, 아깝게 버려질 뻔했던 옷을 활용해서 만든 것이 부딪함을 느끼게 해주었던 것 같다. 크기를 작게 만든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다. 처음 만들어 본 거라서 많이 어설피 보이는 가방이지만 다음에 또 입지 않는 옷을 사용해 더 예쁜 모양의 가방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5) 북토크 후 소감

[강*민]

이번 북토크에서는 다양한 실습을 진행했다. 친구들과 각자 다른 실습을 진행했는데 다양한 실습이 있는 만큼 다양한 실천 방안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제로웨이스트는 처음인데요’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처럼 제로웨이스트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정의를 알고 원칙들도 배우면서 나에게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 모두 처음이라 신기한 점도 많았고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실천 방안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북토크를 통해 해본 제로웨이스트 샵, 플로깅 등등 실습도 책에서 찾아볼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롭게 읽었다. 생각보다 더 생활 속에서 환경을 위해 실천해 나가는 방향이 다양하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던 것 같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차근차근히 해나가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아끼고 지켜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적을수록 풍요롭다’에서는 우리가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자연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관해 탐구해 보았다면 이후 ‘지구를 살리는 업사이클링 환경놀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 방안들을 스스로 해보고 교육하는 법을 배웠다. 현재 ‘제로웨이스트는 처음인데요’에서는 우리 삶 밀접하게 실천 방안들을 더욱 세세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총 10회 기의 북토크를 진행하면서 환경뿐만 아니라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들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리사이클링, 플로깅, 노푸, 프리사이클, DIWO 등 배울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새로 도전해 보는 것도 많아 익숙지 않은 부분들도 많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도전해 보면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혼자 하게 된다면 생각만 하고 실천해 보지 않았을 것은 같이 하다 보니 더 쉽게 도전할 수 있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책을 빨리 읽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나에게 대해 부딪혔던 시간이었다.

[김*나]

'적을 수록 풍요롭다'를 읽고 자연과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폭넓게 사고 하면서, '지구를 살리는 업사이클링 환경놀이', '제로 웨이스트는 처음인데요'를 통해 직접 자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해 보았다. 첫 번째 책을 정독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인간의 이기심이 불러온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야 자연을 지킬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았다. 책을 읽고 친구들과 토의하고 마인드맵이나 퀴즈, 신문 스크랩 등 다양한 방법들로 파고들다 보니 매주 심비오스 하는 날이 재미있었다. 책을 읽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직접 자신이 각자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실행으로 옮기기가 엄청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친구들과 매주 하나씩 환경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줄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책에서는 지구를 살릴 방안들을 학습하고 환경 놀이로 아이들에게 교육 시킬 수 있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서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책을 읽고 직접 행동으로 움직이면서 "누군가 왜 쓰레기를 줄여야 해요? 분리수거는 왜 해야 해요? 이런 걸로 뭘 할 수 있어요?"라고 묻는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자연스레 술술 설명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세 번째 책에서는 각자 하나씩 책에 있는 내용 중 자신이 할 수 있는 실습을 선택해서 만들어 보았다. 나는 동물의 털을 이용한 바늘방석을 만들었다. 바늘방석은 동물들의 털이나 머리카락으로 만들 수 있는데 나는 키우는 애완견의 털을 빌렸다. 안 입는 옷을 활용하여 작고 귀여운 바늘방석을 완성해 보았는데 버리는 것 보다 이렇게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이 부뒀했다. 서투른 바느질이어도 다시 쓰일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 열심히 만들게 되었다. 티셔츠 가방도 아담하니 생각보다 많이 담을 수 있었고 보자기 가방도 쉽게 금방 만들면서 모양도 이뻐서 다들 만족스러워했다. 책뿐만 아니라 연계 활동들도 정말 많이 진행해 보았는데 알맹상점, 망원시장, 플로깅 등 심비오스 활동이 아니었으면 경험하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한다. 이제 심비오스 활동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우리가 매주 실천하던 일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할 것이며 지구를 구하기 위해 제로웨이스트를 더욱 배워나갈 것이다.

[강*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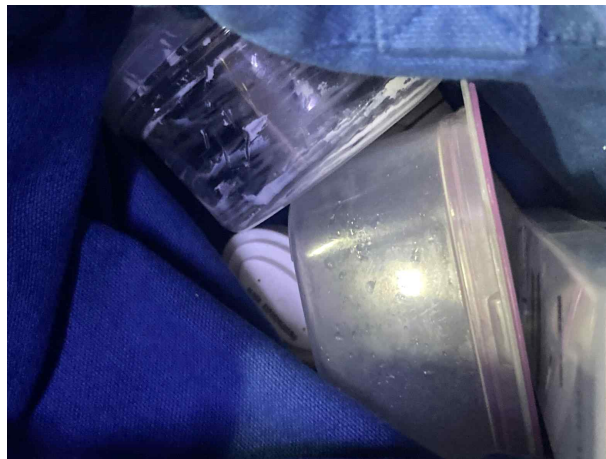
'적을수록 풍요롭다'를 읽으며 자연과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이해하며 토론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지구를 살리는 업사이클링 환경

놀이', '제로 웨이스트는 처음인데요'를 읽고 난 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직접 실습 및 실천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천으로 바늘방석 만들기, 보자기 가방 만들기, 천으로 가방 만들기 이렇게 각각 다른 실습을 해보았는데, 다들 어렵지 않게 실습을 진행할 수 있었다. 나는 잘 입지 않고 있는 옷을 사용해서 가방을 만들어 보았다. 오랜만에 바느질해서 그런지 초반에는 바느질이 비뚤뚤하게 되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점점 익숙해지는데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완성된 가방을 보고 나니 만족스러웠고 매우 부듯했다. 다른 실습을 진행한 친구들의 완성작 또한 마찬가지로였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빨리 제로 웨이스트 실천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아직 해보지 않은 제로 웨이스트 실천도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총 10회의 북토크를 진행한 시간 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매주 책을 읽으면서 토론을 통해 친구들과 여러 관점을 공유하기도 하고, 알맹상점 방문, 플로깅, 주마다 진행했던 환경 관련 실천 등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해왔다는 것이 부듯하기도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해냈다는 것이 부듯하게 다가왔다. 이 심비우스 활동이 끝나도 나는 여전히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일 것으로 생각한다.

6) 이번 주 실천

[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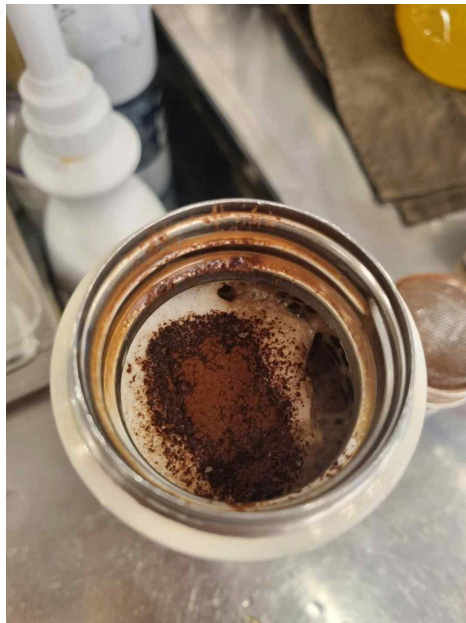
-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하여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다.

[김*나]



- 알맹상점에 판매하던 칫솔을 선물 받아 제로웨이스트 칫솔을 사용해 보았다.

[강*란]



- 카페 근무하는 언니에게 부탁해 텀블러에 음료를 포장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였다.

2023년 11 월 30일

참가자대표 : 강*민